

문 대통령, 다음달 하순 워싱턴서 바이든과 첫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다음 달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다.

한 공조 방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만나는 건 처음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1월 취임했다.

중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조 방안도 주요 의제로 오를 전망이다.

봄을 만나, 영양산나물이 맛나!, 제16회 영양산나물축제 온·오프라인 행사 추진

영양군은 오는 21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제16회 영양산나물축제 온·오프라인 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알릴 계획이다.

전년도 영양산나물축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2005년 산나물축제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축제 취소가 취소되었다.

코로나가 1단계로 조정이 될 시 5월 13일부터 5월 15일까지 3일간 영양전통시장과 복개천 일원에서 봄먹거리장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4월 24일부터 5월 19일 기간 중 영양전통시장 오일장을 활용해 산나물상설장터를 개설하고, 대구 바로마켓 입점을 통해 광역시민에게 정정영양

오도장 영양군수는 "코로나19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 기존처럼 대규모 현장축제를 진행할 수는 없지만, 축제의 지속이라는 중요한 의미와 더불어 산나물 판로의 확보, 성공적인 방역까지 모두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세기기자

"세월호 7주기, 잊지 않겠습니다"... 곳곳에 가득한 추모 열기

세월호 참사 7주기를 맞아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 연대가 16일 오후 3시 경기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세월호 참사 7주기 기억식을 연다.

어민주당 대표는 세월호 참사 7주기를 맞아 희생자 묘역을 참배한다.

전국 곳곳서 '노란리본' 추모물결

는 관련 영화 상영회가 열리고 경기 안산 및 수원, 광주, 부산에서는 노란리본 제작 내지 나눔 행사가 진행된다.



세월호 참사는 지난 2014년 4월 16일 인천항을 출발해 제주도로 향하던 세월호 여객선이 전남 진도 앞 바다에서 침몰해 수하여행을 떠났던 안산시 단원고 학생을 포함한 304명이 안타깝게 희생된 대형 사고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함께한다. 지난 13일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원내지도부가 세월호 아픔을 함께 나누고 다시는 그와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고인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비는 세월호참사 7주기 기억식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같은날 인천가족공원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에서 희생자에 대한 추모기도 거행된다.

교육 당국 역시 추모 분위기에 동참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기억식 및 생명안전공원 선포식에 참석해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할 계획이다.

일 오전 서울 중구사참위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까지 조사결과를 정리하고 올해 조사방향과 관련된 현안을 공개했다.

황 ▲참사 당일 해수부의 세월호 항적 관련 실태(중간 결과) 등도 있다.

이날 협의회에 따르면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유가족이 중심이 된 100명 미만만 참석하고 묵념과 추모사 등이 진행된다. 기억식의 일환으로 4시16분부터 1분 동안 단원구청 일대에서는 추모 사이렌도 울린다.

2016년 2주기 추모식에는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에 추대됐던 원유철 원내대표가 참석했고 2017년에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 "세월호 갖고 3년 해 먹었으면 됐지,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며 불참한 바 있다.

이밖에도 이날 추모행사에는 53합창단과 바리톤 및 현악 4중주의 추모 공연도 펼쳐진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경북 지역 학교를 방문해 시설 안전을 점검하고 화재예방 훈련에 참관하며 '경북 의성 안전체험관 개관식'에도 참석한다.

사참위 진상규명국이 2018년 12월 출범 이후 발표한 조사 결과 항목은 총 12개다. 항목 별로는 ▲참사 당일 해상·항공구조 실태 ▲해경의 퇴선명령 기자회견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현황 ▲솔레노이드 밸브 놀림 현상에 의한 선체 급회전 현상 관련 낮은 가능성(중간 결과) ▲정와대와 정부부처들의 불법 조사방해 실태. 이어 ▲정와대의 참사인지 시점 불법조작 현황 ▲피해자 가족과 국민에 대한 국정원·기무사의 불법 사찰 실태 ▲정해진해운에 대한 산업은행의 불법대출 실태 ▲DVR 수거과정·선내 CCTV 데이터 조작 정

사람위는 직권 조사결과에 근거해 8건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1건은 특별검사 도입을 요청했다.

이낙연·이재명 세월호 추모... '국민의힘'은 5년 만에 참석

주호영 권한대행은 지난 15일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녁'에 "원내지도부가 세월호 참사 7주기 기억식에 참석하는 것은 아픔에 공감하고 국민 통합을 위해 노력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각 지역별 추모기도 거행된다. 서울에서는 '세월호 7주기 강서추모 기획단'이 강서구에서 오프라인 거리두기 공동행동을 진행한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선행해야"

정성욱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진상규명부장은 "사람위는 굴하지 말고 하루빨리 시행령을 통과 시켜 진상규명을 다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성욱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진상규명부장은 "사람위는 굴하지 말고 하루빨리 시행령을 통과 시켜 진상규명을 다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광수기자

대한민국 에너지수도 나주. 에너지밸리 성공을 뒷받침할 에너지 4대특구 완성. 국가혁신 융복합단지,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 에너지신산업 융복합단지, 강소연구 개발특구.

이낙연 "죽는 한 있어도 文 지킬 것, 배신할 수 없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측근에게 "죽는 한이 있어도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8일 동안의 자가격리를 끝낸 이낙연 전 대표는 그 사이 대권 구도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2강 구도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 위기 의식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이에 문재인 대통령 강성 지지자인 '친문' 등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서울시 마포구 소재 사무실에서 이낙연계 의원 20여명과 만나 이 같이 언급한 것으로 복수의 참석자들이 언론에 전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대권 주자로서 문재인 대통령과 차별화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절반 이상 2

인자를 했는데, 다른 소리 하는 건 사기다. 배신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문재인 대통령 '수호' 의지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전 대표는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돼 2년여 동안 총리로 일했다. 말 그대로 문재인 대통령 임기의 절반을 함께 했다.

다만 이낙연 전 대표는 "긍정적인 정책적 차별화는 하겠다"고 밝히면서,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비판 받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보완, 대권 주자로서 경쟁력을 얻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대권을 염두에 둔 듯, "최선을 다해 정권 재창출을 하겠다" "사람들 삶의 문제에 대해 최선을 다해 대안을 제시하겠다"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는 부동산, 백신, 청년을

주요 정책 키워드로 꼽으면서, 이와 관련한 정책 토론회를 열심히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 1월 선제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공론화했고, 이익공유제와 신복지체계 등의 정책을 꽤 공격적으로 국민들에게 밝힌 바 있다. 이때와 비슷하게 부동산, 백신, 청년을 주제로 한 자신만의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낙연 전 대표는 재보궐선거 당일 이었던 지난 7일 부인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자 자택에서 격리에 들어갔고, 여덟 밤을 집에서 보낸 후 오늘(15일) 밖으로 나섰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날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2~14일 전국 성인 1천10명을 대상으로 실시

한 4월 2주차 전국지표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이낙연 전 대표는 같은 3위이기 는 한데, 한 주 전 두 자릿수에서 한 자릿수로 적합도가 떨어졌다.

4월 1주 조사에서 이재명 24%, 윤석열 18%, 이낙연 10%였던 게, 이번 4월 2주 조사에서는 이재명 26%, 윤석열 23%, 이낙연 8%로 나타났다.

숫자 그대로 3차 구도에서 양강 체제로 바뀌는 중이다.

전국지표조사 4월 1주 조사는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5~7일 전국 성인 1천4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응답률은 28.0%에,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1%P.

전국지표조사 4월 2주 조사의 응답률은 27.9%,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최광수/기자



문재인 대통령, 확대경제장관회의 개최

기업인들을 국무회의 하는 세종실로 모신 건 처음, 경제국무회의를 하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각 부처 장관들은 오늘 산업계의 건의사항을 잘 검토해서 정책에 반영하고, 빠르게 추진되는 부분은 상황을 상세히 알려드리라"고 지시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해운업계를 대표해서 참석한 기업인들은 관련 산업의 지원과 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만약 시간이 필요하거나 빠른 시일에 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도 반드시 피드백을 해 드리면서 부처와 업계가 긴밀한 소통체계를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권철승 중소기업부 장관에게는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의 스마트화를 지원하면서 많이 돕고 있다"면서 진단키트, 마스크, 특수주사기 등의 지원 사례를 든 뒤 "중기부가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원 사례를 정리해서 국민들께 알리면 앞으로 대기업이 더욱 중소기업을 보람있게 도울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에 특별히 바라는 것이 있다"면서 '투자'와 '고용'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최대한 투자와 고용을 확대해 주시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

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조선 산업과 관련해 "워낙 오랫동안 불황을 겪어 숙련 인력이 현장을 떠나있었다"면서 "하지만 최근 상황이 좋아져 내년에는 인력이 더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오랜 기간 현장을 떠난 숙련공들에게 직업훈련을 시작하면 그 지역의 고용 상황이 좋아지고, 필요할 때 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기업이 오늘 한몸처럼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드릴 수 있어 보람이 있었다"면서 "이런 소중한 자리가 계속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각급 단위에서 기업과 소통하고, 저 또한 기업이 일자리를 늘린다거나 고용을 늘리는 현상이 있으면 함께하면서 격려하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한 뒤 회의를 마쳤다.

앞서 문 대통령은 확대경제장관회의 시작 전 기업인들과의 환담에서 "기업인들을 세종실로 모신 건 처음이다. 세종실은 원래 국무회의를 하던 곳인데, 오늘은 경제인들을 모시고 경제국무회의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반도체, 자동차 산업의 업황을 언급하면서 "국내 자동차와 반도체 업체가 얼라이언스를 체결해서 국산화를 이뤄야 외풍에 흔들리

지 않을 것"이라며 "그런 협력 관계를 위해서 정부도 지원하라"고 배석했던 이호승 정책실장에게 지시했다.

이에 이정배 삼성전자 사장은 "정부와 기업이 지혜를 모으면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고,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은 "(삼성전자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차량용 반도체를 확보하기 위해 열심히 해외로 뛰고 있는데, 정부가 출장을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신속히 해 주셔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감사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 규제 당시 소-부-장 대응을 경험해보니 정부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기업과 기업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이 기본이었다"면서 "기업이 서로 협력하고, 정부가 힘을 실어주면 극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최광수/기자



경기도의회,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경기도의 즉각 조사 실시 요구

경기도의회는 조사특위를 구성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진상을 밝혀라.

경기도의회 비교섭단체 국민의힘, 정의당, 민생당 의원들은 15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 착수와 경기도의회 차원의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비교섭단체 정당 소속 의원들은 제351회 임시회에 도정질의 내용 중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력직으로 채용된 4급 이상의 직원 중 전임 원장과 관련되거나 특정 지역 직원이 다수 있으며, 이들 모두 면접만을 통해 채용된 사람들이라는 점을 들어 의문을 제기했다.

그리고 지난 3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특정인물 심사 서류에 채용에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표기를 하였다가 지우는 방법으로 부정 채용을 저지른 것이 의심되는 사례와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제시된 채용요건에 충족되지도 않는 자를 채용한 사례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신고가 들어가 조사에 착수한 사실을 언급하며, 명백히 '코드인사'를 위한 채용비리가 의심되는 사안으로 적극적인 조사와 조치가 필요함에도 경기도가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의원들은 경기도에 새로운 '공정'의 가치와 권력에 흔들리지 않는 원



칙이 세워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조사특위를 구성하여 도민들 앞에 한 치의 부끄러움이 없도록 낱낱이 그 내용을 밝혀야 하며, 채용과정 상에 나타나는 명백한 불법행위는

물론 무리한 규정이나 지침의 개정, 채용절차의 생략 등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라고 의심받을만한 정황은 없었는지 파악하여 즉시 조치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최근수/기자

http://www.dailyculture.kr/ 문화매일 facebook.com/wawa105sujin

우편번호 : 08333 서울 구로구 개봉로 12길 9-19 105동 201호
 우편번호:14222 광명시 시청로7 흥신에이스텔 701호

발행·편집인: 최수진 /부회장 박부석 /사장 임석경 / 편집국장:최재은
 청소년 보호 책임자 발행인:최수진

대표전화:1899-9659 e-mail:ekwk44@naver.com sujin004344@daum.net

2009년 4월 12일 창간 정치 부:내선 (112) 문화 부:내선 (116)
 2009년 3월 12일 등록번호:서울.가50146 사회 부:내선 (113) 부동산부:내선 (11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한다 경제 부:내선 (114) 오피니언부:내선 (118)
 대표전화 : 1899-9659 스포츠부:내선 (115) 지방 부:내선 (119)
 편집국 : 02)2612-2959
 팩 스 : 02)2060-4147 구독신청.배달안내 : 1899-9659 구독료 : 월 15,000 1부 800원



대구 수성 위버센터럴

노원구 수락산에 축구장, 야구장 갖춘 스포츠타운 들어선다

축구장(1면), 야구장(1면), 테니스장(3면), 여가복지공간 갖춘 수락산 스포츠타운

서울 노원구가 지하철 4호선 상계역 인근 수락산 자락에 종합 스포츠타운을 건립한다고 밝혔다.

올해 2월 공사를 시작한 수락산 스포츠타운은 상계동 125번지 일대 3만5566㎡ 부지에 총 사업비 440억원을 투입해 축구장 1면, 야구장 1면, 테니스장 3면과 여가복지공간을 갖춘 체육시설로 조성할 예정이다.



82m 규모로 공원야구장 규격에 맞춰 설계했으며, 인조잔디를 설치해 사용자 안전을 고려했다.

90mX60m 규격의 축구장 역시 인조잔디를 설치하고, 충격흡수 배수관을 사용해 부상 방지 등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테니스장도 조성한다. 3면으로 각 면은 10.97mX23.77m 규모의 국제경기장 규격을 갖췄다.

야구장과 테니스장 사이에는 잔디

광장과 간이무대 등 여가복지공간이 조성돼 주민들의 휴게공간이 되어 줄 예정이다. 소나무와 왕벚나무, 산철쭉 등을 식재하여 스포츠타운 뒤편으로 보이는 수락산의 전망과 어우러지게 꾸며진다.

관리동은 남녀 샤워실과 탈의실, 화장실, 사무실 등을 갖춘 예정이다. 또 야간에도 경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조명탑도 설치한다.

사업대상지는 자연녹지와 개발제

한구역으로 자연환경이 잘 보전 되어야 하는 지역임에도 그동안 무허가 건물이 난립해 경관이 훼손되고, 폐기물이 쌓여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구는 지난해 말까지 불법 건축물 철거를 마무리하고 올해 2월 착공, 2022년 상반기 준공을 앞두고 있다.

한편 구는 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해 권역별 체육 인프라 시설 확충에 집중하고 있다. 수락산 스포츠타운 외에도 '서울 어울림 체육센터'와 '상계 주민체육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 이에 기존 운영 중인 '불암산 스포츠타운', '육사 화랑 야구장' 등의 시설과 함께 가까운 생활권 내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오승록 구청장은 "수락산 스포츠타운은 구민 모두를 위한 열린 공간"이라며 "앞으로 구민 누구나 불편함 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종로구, 이달까지 8만 그루 나무심기... '미세먼지 저감' 총력전

'푸른도시 종로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이달 말까지 8만 그루 식재하고 있어...올해 22만 그루 심기 목표

종로구는 지속가능하면서도 친환경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꼽히는 '나무 심기'를 통해 구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 중이다.

이를 위해 '푸른도시 종로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봄철을 맞아 이달 말까지 8만 그루의 나무 심기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이른 봄부터 준비하여 나무를 심는 데 적기인 3~4월 집중적으로 나무를 식재하고 있으며, 2021년 한해 총 22만 그루를 심을 계획이다.

종로구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푸른도시 종로만들기 사업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걸쳐 열 가지 세부 사업을 실시, 2024년까지 관내 전역에 100만 그루 심기를 목표로 한다. 지난해에는 관내 교통신, 자투리 공간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당초 목표했던 9만 그루를 훌쩍 뛰어넘는 약 28만 8천 그루를 식재한 바 있다.

100만 그루 나무 심기 외에도 도심

내 금년 상반기 중 자투리 공간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정원도시 종로 사업'을 시행한다.

금년 상반기 중 교통섬 녹지 15개소, 자투리 녹지 31개소를 조성하여 줄어있던 공간이 나무와 꽃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나무 심기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은 나무가 생육하는 기간 동안 추가적인 에너지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지속적으로 미세먼지를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아울러 녹시향상, 탄소 저감, 도심 내 열섬현상 완화 등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부수적인 효과 또한 뛰어 나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종로구는 일찍이 미세먼지가 가져올 위험성을 알아차리고 주요 업무시설과 교통량이 많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주민 건강을 지키면서도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정책을 선도적으로 시행해 왔다. 그 예로 도로 물청소 강화, 건물 옥상 청소, 대기 오염원 정리, 미세먼지 줄이기 캠페인 전개 등을 들 수 있다.

김영종 구청장은 "주민 건강과 행복에 중점을 두고 관내 곳곳에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숨쉬기 편한 청정 지역을 만들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만식기자

중구, 답동성당 관광자원화사업 건설공사 드디어 첫 삽 떴다

홍인성 구청장, "중구 원도심 관광자원화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될 것"

인천 중구청은 14일 중구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답동성당 관광자원화사업 건설공사』 착공식을 답동성당 전면광장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중구 주민과 박남춘 인천광역시 시장, 국회의원, 시·구의원을 비롯해 인천교구청, 답동성당, 자생단체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사적 제287호인 답동성당은 근대 개항기 인천의 역사와 문화를 상징하는 근대문화유산이다. 한국의 성당 중에서도 124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매우 오래된 서양식 근대 건축물 중 하나이다.

『답동성당 관광자원화사업 건설공사』는 총 28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답동성당 일대를 역사문화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답동성당을 가리고 있던 건축물을 철거해 시가지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성당의 모습을 드러내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전면광장과 연결된 부지 상부를 시민광장과 녹지가 어우러진

휴게공간으로 조성한다.

지하공간에는 211면 규모의 주차장을 건설해 이 일대를 찾는 관광객과 천주교 신도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개항기 종교 문화관광 벨트가 형성되는 시발점 조성사업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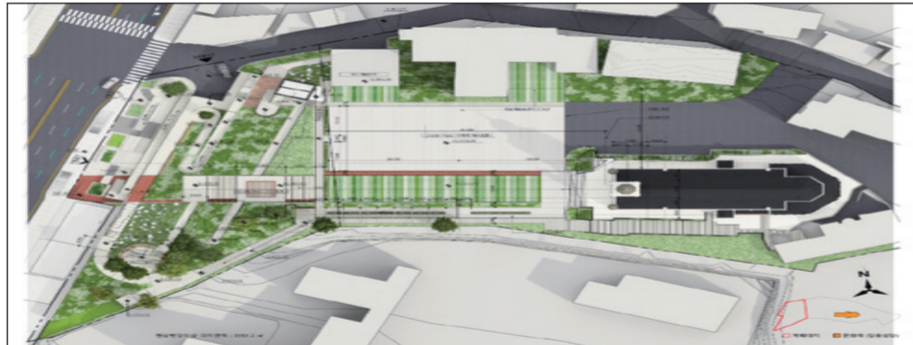
답동성당이 국가지정 문화재인 만큼 사업추진 과정에서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 여러 단체들과의 협의 등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답동성당 관광자원화 건설

사업은 시민들에게 역사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쉼터를 제공 할 뿐만 아니라, 동인천 지하상가를 통할 수 있는 연결통로를 설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홍인성 구청장은 "본 사업을 통해 중구 원도심 발전에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구민 여러분의 생활에 큰 활력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변재현기자



성북구보건소, 2021년도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성북구 난임부부 대상 한의약 치료 협약비 지원

성북구가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으로 구민 삶의 질 향상 및 출산율 증가를 위해 힘쓰고 있다.

2017년에 서울시 최초 난임 부부에 대한 한방 치료비 지원을 시작한 성북구는 성북구 한의사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성북구민 중 자연임신을 원하는 원인불명의 난임부부(여성 만 41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의약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내용은 한의약 난임치료 협약비용 3개월분의 90%(지원상한액 1,192,320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수급자 및 차상위에게는 전액을 지원한다. 서울시 지정 한의원 중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원하는 의원을 선택해 치료받을 수 있다.

성북구보건소는 15일부터 2021년도 참여자를 모집한다. 희망하는 구민은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에서 지원 대상 적격여부 자가점검 후 원인불명의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난임진단서, 검사결과지 및 필요서류를 보건소에 접수하면 된다. 서류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며, 한의약 난임치료 중 난임 시술은 불가하다.

강성원기자

2021년 성북구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모집기간
2021년 4월 15일(목) 부터

지원내용
한의약 난임치료(3개월) 협약비용의 90% 지원 (지원상한액 1,192,320원)
= 협약비용의 10%, 침구치료 등의 비용은 본인부담
= 수급자 및 차상위는 전액 지원

신청자격
자연임신을 원하는 원인불명의 성북구 난임부부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시 거주, 여성 만 41세 이하(1979. 1. 1. 이후 출생자), 국가 및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동시 지원 불가

신청방법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https://seoul-agi.seoul.go.kr/smom)에서 지원대상 적격여부 자가점검 후 보건소 방문신청 (구내서류 지참) 혹은 온라인 신청(5월 이후)
= 성북구보건소 7층 건강관리과

문의전화
02-2241-6004, 6006

서울특별시, 친환경 건축가 꿈꾸는 청소년을 위한 진로체험 운영

전문가가 설계한 온라인영상 수업, 교재와 체험교구로 집에서 안전하게 학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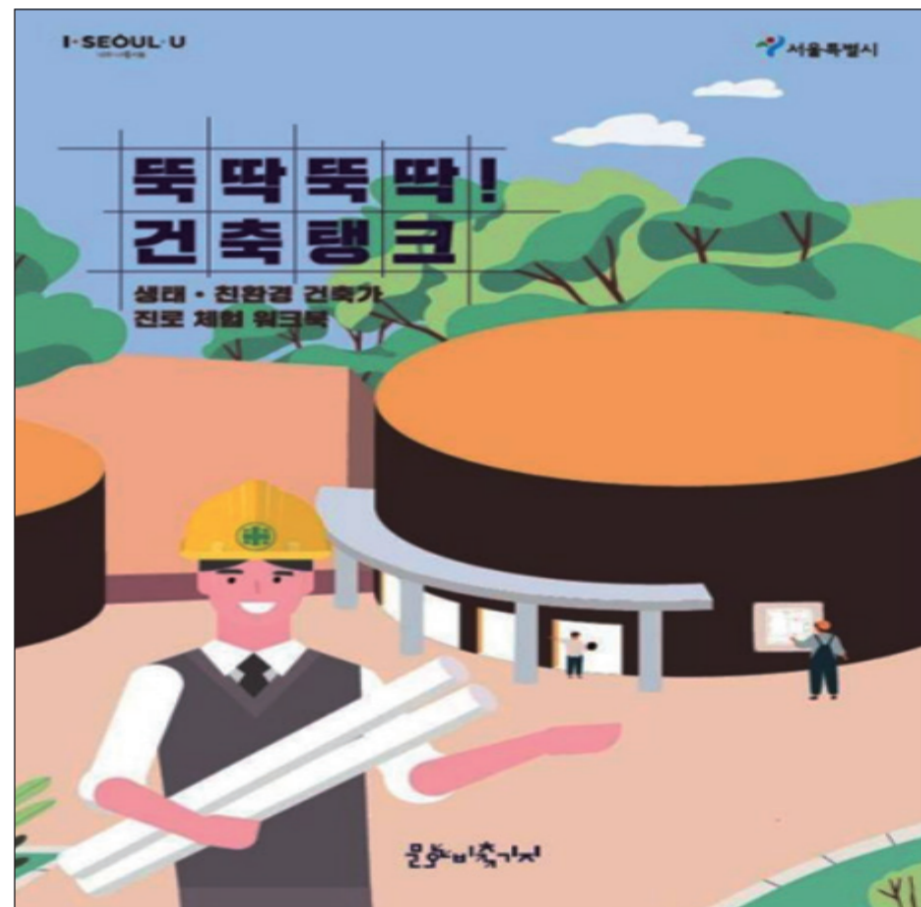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문화비축기지는 2021년 청소년 프로그램 '똑딱 똑딱! 건축뱅크' : 생태·친환경 건축가 진로 체험'을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오는 19일부터 선착순 1,5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똑딱 똑딱! 건축뱅크'는 자유학년제 연계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으로 건축 진로강사와 함께 문화비축기지 공간을 탐방하고 나만의 새로운 댕크공간을 직접 설계해보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이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안전지침에 따라 온라인을 활용하여 안전하게 집에서 참여가능하며 교재와 체험키트를 배송 받아 이론과 실습을 병행할 수 있다. 프로그램 신청은 4월 19일부터 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에서 가능하고 참가비는 1인당 8천 원이다.

그동안 생태·친환경 건축에 대해 궁금했던 청소년이라면 전문건축가가 설계한 영상교육과 교재로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으며 다양한 문화비축기지의 공간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다. 게다가 여러 가지 건축재료로 댕크설계 실습까지 체험할 수 있으니 일석삼조이다.

교재와 체험키트는 신청순서대로 각 가정으로 배송되며 수업영상은 접수자에게만 공개된다. 조기에 마감될 우려가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이나 학교, 교육단체는 서둘



려야 한다.

남길순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은 "문화비축기지의 도시재생과정과 환경에 대한 건축적 역할을 이해할 수 있는 본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이 생태·친환경 건축에 대한 진로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의 상황이 나아져서 많은 청소년들이 공원에 방문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강동구, 소상공인을 위한 방문 노무상담 운영

강동구가 4월부터 소상공인을 위해 직접 사업장을 찾아가서 노무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직영으로 운영되는 강동구 노동권익센터에서는 무료 노무상담을 상시 지원하고 있지만 노무상담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장 특성상 별도의 시간을 내기 어려워 상담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로 인해 개정된 법규 등을 인지하지 못하고 노동법 위반 과태료 등 억울하게 처분을 받는 경우와 고용주·노동자 간 분쟁 시 적절한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공인노무사가 사업장에 직접 찾아가서 최근에 개정된 노동관계법령을 바탕으로 노무관련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등 사업장 여건과 환경에 맞는 맞춤형 노무상담을 제공한다.

관내 소재 소상공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선착순 20개 사업장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며 한 번의 상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방문하여 놓친 것이 없는지 꼼꼼히 체크할 예정이다.

신청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 노동권익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최만식기자

소상공인을 위한 방문 노무상담 신청안내

공인노무사가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서 사업장 여건과 환경에 맞는 맞춤형 노무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신청대상 : 관내 소재 소상공인 사업장 (신청대상: 내·외국 프랜차이즈 등 300인 이하의 소기업, 주·부업 포함사업장 제외)

신청기간 : 2021. 3. 29.(일) ~ 11. 30.(20개 사업장 선착순)

신청서류 : 신청서, 신청공인명세서, 대표이사명 또는 대표이사명, 대표이사인감 또는 직인, 신청서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신청서 및 사업장특성서 사본, 대표이사인감 또는 직인, 신청서

문의전화 : 02-3425-0712 (강동구청 노동권익센터 노동법지원팀)

참고 : 이 사업은 특별시장(시장)으로부터 선착순 20개 사업장에 한하여 신청(선착순)이 가능합니다.

관악구, 동종업계 청년커뮤니티 활동지원 공모사업 참여하세요~!

공통의 관심사를 지닌 동종업계 청년들이 구성된 커뮤니티 활동 지원

관악구가 공통의 관심사를 지닌 동종업계 청년들의 교류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동종업계 커뮤니티 활동지원 공모사업'의 참여팀을 오는 23일까지 공개모집한다.

이 사업은 청년들이 일을 하면서 필요한 정보와 고민에 대해 함께 공유하며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계획했으며, 동종업계 청년들이 특정분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거나 새로운 목적을 지닌 커뮤니티 결성에 대한 활동비를 지원한다.

지원 자격은 서울시 소재 근무지에서 근무 중인 만 19세 ~ 39세 청년 중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대면활동 시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4인 이하로 모임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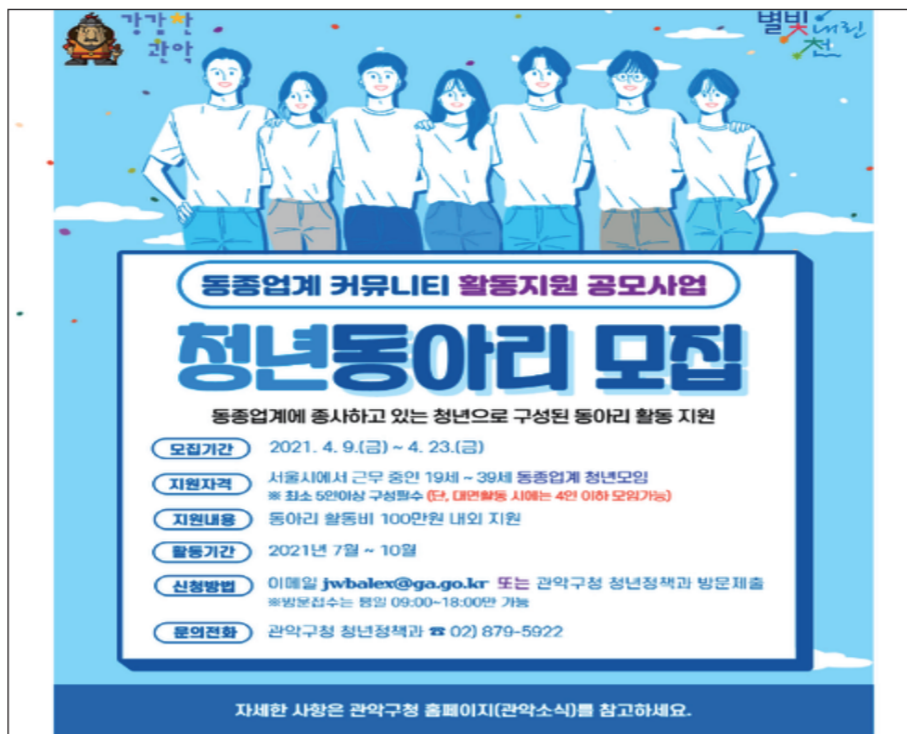
신청을 원하는 동아리는 관악구청 홈페이지(뉴스소식▶관악소식)에서 공고문을 확인한 후 사업신청서 등의 서류를 작성, 관악구청 청년정책과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은 서류·서면심사 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결과는 6월 중에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최종 선발된 10개의 동아리에게 100만원 내외의 지원금을 지원, 오는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동아리 활동을 펼치게 된다.

박준희 구정장은 "이번 사업이 동종업계에 근무하는 청년들의 소통과 공감대 형성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부평구, 도시기록집 '부평 11번가와 함께한 가게' 발간

지역과 공존한 상점 기록으로 남겨 데이터화

부평구는 14일 원도심에서 점포를 운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조망한 도시기록집 '부평11번가와 함께한 가게'를 발간했다.

'부평11번가와 함께한 가게'에는 지난해 부평구 도시재생뉴딜 기록화 사업에 선정된 가게 13곳 등이 실렸다.

기록화사업은 부평구 도시재생뉴딜사업인 '부평11번가' 지역에 남아 있는 자원과 기억을 발굴하고 기록하기 위한 사업이다.

단순히 사실을 기록하는 것을 넘어 예전의 활기를 잃어버리고 일상을 살아가는 부평 사람들에게 지역의 가치를 알리고 애정과 자부심을 안겨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지난 2020년 6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한 도시기록은 부평구 도시재생뉴딜사업지구 안팎에서 요식업을 운영 중인 점포와 상인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도시기록 참여를 희망하는 점포들로부터 신청서를 받고, 분야별 전문가 3인이 상인의 참여 의지와 지역 애정도, 점포 운영 철학, 음식의 희소성, 친절성, 운영 지속 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고려해 심사했다.

선정 점포에 대한 도시기록은 전문 기술기록가 및 사진작가와 협력해 이뤄졌다.

기초조사 및 신청서를 바탕으로 창업계기, 운영철학, 가업의 형태, 점포 이야기, 향후 계획 등 점포 및 상인에 대한 이야기를 채록하고 점포의 내·외관 및 메인 메뉴, 조리 과정, 대표자 등을 촬영해 이미지 형식의 기록도 남기고자 했다.

구는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지역의 이야기를 꾸준히 기록으로 담을 예정이다.

부평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관계자는 "도시기록집 '부평11번가와 함께한 가게'에는 지역사회와 공존하며 살아온 상점과 상인의 모습을 사진·인터뷰 기록으로 남겨 데이터화 했다"며 "이 자료들은 부평구 원도심 일대의 도시기록 기초자료로 쓰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시기록집 '부평11번가와 함께한 가게'는 부평구 도시재생뉴딜사업지구와 부평구 행정복지센터 등에 배포되며, 부평홍보관 홈페이지 E-book 코너에 게재될 예정이다.

변재현기자



강동구, 지역경제 활성화 종합대책 수립·시행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 경기침체 대응, 지역맞춤형 사업 추가 발굴

강동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지역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구는 종합대책에 따라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일자리 지원, 지역상권 살리기, 경기부양책 등 4개 분야에서 정부·서울시와 연계한 사업과 강동구 실정에 맞는 지원 대책인 41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으로 ▲소상공인 대상 노동법률·심리상담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착한임대인 발굴을 통한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추진 ▲지방세 납부유예 등 지방세 지원 ▲소상공인 풍수해 보험료 지원 ▲대형버스 주차료 감면 등을 통한 주차지원 등 지역 맞춤형 사업들을 확대할 계획이다.

일자리 지원분야에서는 ▲소상공인 무급휴직자 고용유지지원 ▲공공일자리 확대를 추진 ▲상반기 재정을 신속 집행 ▲신속한 계약 체결·대금 집행 등 경기 부양책을 추진한다.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1기 관 1시장 결연사업 ▲강동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강동 빗살머니 발행 ▲지역경제활성화 창의 아이디어 발굴 ▲주정차 위반 탄력적 단속 ▲유관단체·시설에 지역상권 이용 독려, 관내업체 우선구매를 권장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 진정 국면 이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한마당 행사, 상생거리 조성, 온라인 배송서비스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작년 5월 지역경제대책본부 설치 후, 50여개 사업을 추가 발굴하였다. 지속적 운영을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주민과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지원방법을 논의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황규석기자



황규석기자

중랑구,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공모

거주지나 생활권이 중랑구인 3인 이상 주민 또는 단체에서 신청 가능

중랑구가 오는 4월 23일까지 주민이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실행하는 '2021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의 공모를 접수받는다.

총 사업비 규모는 7천만원으로 사업 유형별로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사업비를 지원하며, 공모사업은 구, 동, 골목, 거점, 공간 등 다양한 단위규모로 이뤄진다.

중랑구 전반의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따뜻한 마을공동체, 동보다 작은 골목 단위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골목공동체, 동 단위 이웃 간 소통증진과 관계망 형성을 위한 이웃만들기, 동네 놀이터나 공원 등 거점장소 중심으로 활동하는 동네거점공동체, 기후위기에 돌봄, 난 경 등 동네의 문제해결을 위한 동네문제해결공동체 등 총 5개 부문이다.

공모사업의 주제는 소통, 교육, 환경, 문화예술, 건강, 인권, 안전, 경제 등 다양한 분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이웃 간 소통과 화합을 통해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필요성, 공공성, 창의성이 있는 사업

이면 된다. 신청은 중랑구에 거주하거나 학교나 직장 등 생활권이 중랑구인 3인 이상 주민이나 단체면 누구나 가능하다. 동일 사업으로 보조금을 받는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하는 사업,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일반강좌를 운영하는 사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의 지원사업, 신청 및 접수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단, '이웃만들기' 사업의 경우 해당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동별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해야 한다. 접수된 사업은 심사를 거쳐 5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중랑구청 홈페이지란을 참고하거나 중랑구청 마을협력과, 중랑마을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이번 주민제안사업은 살아가는 터전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 직접 활동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행복한 마을을 만드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주제인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2021년 중랑구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주민제안사업은 주민이 주도적으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직접 제안·실행하며, 행정지원과 다양한 주체와 마을공동체 스스로 대응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이다.

접수기간 2021년 4월 8일(목) ~ 4월 23일(금)

신청대상 중랑구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이 중랑구인 주민 3인 이상

문의번호 02.434.1230 (중랑마을지원센터) 02.2094.0445 (중랑구청 마을협력과)

사업명	지원금	차별성	지원자격
이웃만들기	500만 원	비교	주요공동체 공모사업 신청대상 주민
골목공동체	500만 원	비교	지역공동체 공모사업 신청대상 주민
이웃만들기	500만 원	비교	주요공동체 공모사업 신청대상 주민
이웃만들기	500만 원	비교	주요공동체 공모사업 신청대상 주민
이웃만들기	500만 원	비교	주요공동체 공모사업 신청대상 주민

필수체크

- 주민제안사업 서류 제출 전, '중랑마을지원센터'와 사전 상담하기
- 단체는 세앗기, 이웃만들기 사업 참여 불가
- 사업 선정 시 협약, 필수교육 꼭 참여하기

서구, '언택트 시대'맞춤 '자동차 365' 적극 홍보 나서



인천 서구는 언택트(untact) 시대를 맞아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으로 쉽고 빠르게 차량등록을 할 수 있는 '자동차 365'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이 사이트를 통하면 민원실을 방문하지 않고 자동차 등록을 할 수 있어 사이트가 활성화되면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민원편의 증진 등에서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 365'는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2017년 구축·운영 중인 사이트로, 공동인증서를 활용해 자동차 신규·이전등록과 같은 차량등록 업무뿐만 아니라 자동차 등록증 등 각종 증명서 발급도 할 수 있다.

차 실매물 검색 ▲자동차 정비 이력 조회 ▲자동차 시세 조회 ▲자동차 등록비용 및 세금 조회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중고차 구매자와 차량 소유주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최근 자동차 신규등록 시 차량번호 선택 기능(무작위로 추출된 10개 중 1개 선택)과 온라인 자동차 등록 업무를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기능이 새로 도입돼 더욱 편리한 업무처리가 가능해졌다.

서구 관계자는 "어디서나 편리하게 자동차를 등록할 수 있고, 차량 소유주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자동차 365'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중남기자

강동구,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스마트도시 서비스 중점사업 실행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 기대

강동구가 정부의 뉴딜 정책에 발맞춰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안전한 주민들의 삶을 위한 스마트도시 조성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

강동구는 지난 3월 29일 이정훈 구청장을 비롯한 중점사업 추진TF 부서장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도시 서비스 중점사업 실행계획 보고회」를 개최했으며 이밖에 수립된 마스터플랜을 토대로 지속가능한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날 보고회에서 구는 '포용적 도시 성장, 스마트 그린도시 강동'이라는 비전 아래 ▲지속가능한 저탄소 도시형 생태도시 ▲누구나 함께 누릴 수 있는 복지도시 ▲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데이터 기반도시 ▲이용자 중심의 교통·안전도시 ▲강동형 디지털 뉴딜 등 5대 중점분야, 13개 추진전략을 제시했으며 구정 전반에 걸쳐 37개 스마트도시 서비스 구축을 목표로 내세웠다.

앞서 구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기반으로 '스마트 의류수거함'을 선보였으며 반려로봇 '리쿠'를 활용



한 스마트 교육을 실시해 많은 주민들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생활인구가 밀집된 장소에 디지털 마을 알리판을 설치해 지역 소통 활성화를 이끌어내고, 365일 대출과 반납이 자유로운 스마트 도서관을 설치해 주민들이 편리하게 도서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생활 혁명 공간이다.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이 공감하는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해 신규서비스 발굴과 중점사업 추진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강동구는 스마트도시 서비스 중점사업에 대해 분기별 추진사항을 점검해 나가며 직원들로 구성된 연구동아리를 운영해 스마트도시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업무 아이디어를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황규석기자

인천시, 주민안전이 최우선이다!! 화물차 통행제한 앞당겨 시행

시·경제청·경찰청·인천항만공사 주민안전 위해 뭉쳐 대책 논의

인천광역시 아암물류2단지 화물 주차장 설치에 앞서 인근지역 교통 안전 정책을 강화하는 등 지역주민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3월 화물주차장 입지 결정 발표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교통안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통해 주민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인천시는 지난 9일 안영규 인천시 행정부시장 주재로 관계기관과 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 교통안전 및 경관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인천경찰청(청장 김병구), 인천항만공사(사장 최준욱), 인천경제자유구역청(청장 이원재)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민 안전을 위한 ▲화물차의 아암물류 인근 주거지역으로의 출입통제 방안 ▲아암물류2단지 인근 주거지역 및 스크론펙 교통안전 ▲경관개선 등이 집중 논의됐다.

먼저 아암물류 인근 주거지역 화물차 출입통제와 관련, 당초 아암물류 인근 주거지역의 개발 완료시기에 맞

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시기를 앞당겨 상반기 중에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현장조사 결과 현재 이곳에 물류화물차의 통행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무심코 진입할 수 있는 화물차의 통행을 사전 예방하고 지역주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다만 공사용 화물차량의 경우 경찰청에서 발급하는 출입증을 발급 받으면 출입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어린이 안전을 위해 아암물류 인근 주거지역 내 스크론펙 교통안전 대책도 마련했다.

우선 보도육교(은송초)와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등 아암물류 인근 주거지역 주변의 교통안전 대책을 추가로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화물차 통행제한 위반 단속 CCTV를 설치하고, 스크론펙 3개소(미송·송담·은송초) 제한속도도 오는 28일 열리는 교통안전시설규제심의 후 즉시 하향(50→30km/h)조치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제항만대로(아암1교는)는 현 시점에서 화물차의 통행

제한이 어려운 만큼 우선 아암2·3교로 진출입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개통 시 관련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아암1교의 화물차 통행제한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 지역을 친도시·친환경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아암물류2단지 인근에 대규모 근린공원을 조성해 향만시설물의 시야를 차단하고, 지역주민들의 휴게 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화물차주차장 인근에 대기질 측정소를 설치하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지역 주거환경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안영규 부시장은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요구 사항에 귀 기울이고 대화와 소통을 통해 주민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사항이 보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주민 안전을 최우선 하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종남/기자

구리시, '보행자가 우선되는 도로 정비 사업' 93% 보통 이상 만족

구리시민 335명 설문 참여, 안전사고 예방과 보행 편의가 개선된 것으로 평가

구리시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구리시민을 대상으로 '보행자가 우선되는 도로 정비 사업'에 대한 주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행자가 우선되는 도로 정비 사업'은 차도와 보도 구분이 어려운 관내 이면도로에서 보행자와 차량 사이의 간섭에 따른 위험성 해결, 사람 우선의 보행 인식을 제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설문조사 대상은 2020년 정비가 완료된 ▲별말로147번길(신도평 먹자골목 일원) ▲건원대로99번길(인창중앙공원 주변) ▲동구릉로53번길(삼성래미안아파트~아름마을 어린이공원) 등 3곳으로 사업 이후 개선된 보행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조사했다.

구리시민 총 335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했으며, 사업 이후 개선된 보행 환경에 대부분 보통 이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도로 정비 사업 시 주차 문제 해결과 불법주차 단속 등이 불편 사항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구리시민은 사업 이후 개선된 보행 환경에 매우 만족 31%, 만족 38%, 보통 24%, 불만족 6%, 매우 불만족 1%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 이후 개선된 사항으로는 안전사고 예방 35%, 보행 편의 개선, 37%, 도로 미관 향상 25%, 기타 3%로 집계됐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를 만들어 지역경제 발전에 활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로 정비 공사로 인한 통행 불편과 혼잡이 예상되니, 공사 기간 중 불편이 있더라도 양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올해에는 ▲동구릉로159번길(풍림아이원아파트 주변) ▲체육관로171번길(협신자동차공업사 주변) ▲이문안로129번길(밀알마트 앞) ▲검배로29번길(투썸플레이스~GS25시) ▲교문2동 단독지구에 문양 블록 설치, 요철 구간 재포장 등 5곳의 도로 정비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리시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구리시민을 대상으로 '보행자가 우선되는 도로 정비 사업'에 대한 주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행자가 우선되는 도로 정비 사업'은 차도와 보도 구분이 어려운 관내 이면도로에서 보행자와 차량

사이의 간섭에 따른 위험성 해결, 사람 우선의 보행 인식을 제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설문조사 대상은 2020년 정비가 완료된 ▲별말로147번길(신도평 먹자골목 일원) ▲건원대로99번길(인창중앙공원 주변) ▲동구릉로53번길(삼성래미안아파트~아름마을 어린이공원) 등 3곳으로 사업 이후 개선된 보행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조사했다.

구리시민 총 335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했으며, 사업 이후 개선된 보행 환경에 대부분 보통 이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도로 정비 사업 시 주차 문제 해결과 불법주차 단속 등이 불편 사항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구리시민은 사업 이후 개선된 보행 환경에 매우 만족 31%, 만족 38%, 보통 24%, 불만족 6%, 매우 불만족 1%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 이후 개선된 사항으로는 안전사고 예방 35%, 보행 편의 개선, 37%, 도로 미관 향상 25%, 기타 3%로 집계됐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를 만들어 지역경제 발전에 활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로 정비 공사로 인한 통행 불편과 혼잡이 예상되니, 공사 기간 중 불편이 있더라도 양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올해에는 ▲동구릉로159번길(풍림아이원아파트 주변) ▲체육관로171번길(협신자동차공업사 주변) ▲이문안로129번길(밀알마트 앞) ▲검배로29번길(투썸플레이스~GS25시) ▲교문2동 단독지구에 문양 블록 설치, 요철 구간 재포장 등 5곳의 도로 정비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만식/기자



북구, 쓰레기 불법투기 야간단속 실시

광주시 북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음식, 택배물량 등이 증가하면서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구·동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3월에는 운암3동, 용봉동, 신용동, 중흥1동 상습 투기지역을 대상으로 야간 합동단속을 통해 총 22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합동단속반은 야간 잠복근무를 통한 현장 적발과 함께 투기된 쓰레기를 확인 후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투기 행위자를 찾아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북구는 취약지 순찰, 감시카메라(CCTV) 20대 추가 설치 등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고 공무원, 자원단체, 주민 등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취약지에 대한 불법투기 근절에 힘쓸 예정이다.

또한 불법투기 확인·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운영, 주민들의 참여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김덕윤/기자

양주시, 화훼류 원산지표시 지도 점검

양주시는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소비가 증가하는 화훼류에 대해 원산지표시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외국산 화훼류가 국내산으로 둔갑하거나 원산지표시 없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품목은 국내산과 외국산으로 분류해서 실시하며 국내산은 △국화, △스카네이션, △장미, △백합, △튤립, △글라디올러스, △거베라, △아이리스, △프리지아, △칼라, △안개꽃 등 11개 품목이며 외국산은 수입 판매되는 모든 화훼류이다.

시는 관내 화학 제조판매업체, 화훼공판장, 도소매상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적정여부, 안내표시판·스티커 등 원산지표시 의무화에 따른 이행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 즉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은 바로 보완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화훼 생산 농업인을 보호하고 지속적으로 화훼류에 대한 원산지표시 관리를 강화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희/기자

관세청, 전 세계 79개국 '합성마약 합동단속' 실시

관세청이 제안해 전 세계에서 실시된 '합성마약 합동단속'에서 총 6.7톤의 마약류가 적발됐다.

이번 합동단속은 지난해 관세청이 제안해 세계관세기구(WCO) 소속 회원국 다수의 지지를 얻어 추진됐으며 지난 2월 1일부터 3주간 전 세계 79개국의 관세당국 및 유엔 마약범죄사무소, 인터폴 등 19개 국제기구가 참가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번 단속에서는 태국, 일본, 멕시코, 스페인 등 단속 참여국들이 비대면방식으로 마약 밀수 우범성이 높은 화물에 대한 집중적인 공조단속과 정보교환을 실시했다.

그 결과 총 48개국에서 암페타민 1.7톤, 메트암페타민 221kg, 엔디엠에이(MDMA) 61kg 등 총 6.7톤의 마약류가 적발됐다.

이번 합동단속은 적발정보 실시간 교환, 최근 마약류 밀수 동향 분석·공유, 공급국과 수요국 간 양방향 공조수사 등을 평상시에도 활발하게 할 목적으로 실시됐다.

관세청은 단속의 집중도를 높이고 유기적인 공조체제 구축을 위해 서

울에 자리한 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 정보센터(RILO AP)와 함께 작전 통제센터를 운영하면서 단속의 원활한 진행을 뒷받침했다. 관세청은 지난 2012년 아태지역 정보센터를 한국에 유치한 바 있다.

이번 단속에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가 간 여행자 이동이 제한됨에 따라 해상화물 및 국제우편·특송 화물을 통한 마약류 밀수가 집중 적발됐다.

태국은 한국행 국제우편에서 메트암페타민 4건 8kg을, 멕시코는 미국과 호주행 국제우편에서 메트암페타민 3건 47kg을 각각 적발했으며 레바논은 해상화물로 운반되는 기계에 은닉된 암페타민 1.7톤을 적발했다.

한편, 국내에서도 작전 기간 중 입수한 해외 우범정보를 기초로 특송 화물 및 국제우편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지난 2월 한 달간 총 27.7kg의 마약류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에 이어 관세청은 5월 세계관세기구와 함께 단속 참가국 대상 사후 강평회의를 개최해 해외 단속기관과의 합동단속 성과를 공유하



고 지속가능한 공조체제를 유지구축할 계획이다.

관세청 백형민 국제조사과장은 "전 세계에서 국제 마약조직이 개입된 마약류 밀수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합동단속을 통한 해외 단속기관과의 공조가 이뤄져야 단속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범정부 목표 하에 빈틈없는 마약류 단속망 구축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도민에게 행복을 드립니다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새로운 지방자치시대 경기도의회가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안양시 최대호 시장 “무책임한 방역 태도가 4차 대유행 촉발한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 현실화’우려에 15일 대시민 호소문 발표

최대호 안양시장이 15일 오전 ‘코로나19 4차 대유행 현실화’를 우려하는 대시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최 시장은 이날 안양시청 접견실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며 “이대로라면 감염자 수가 2배 이상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과 함께 4차 대유행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698명으로 확산 추세가 이어졌다. 안양 지역 또한 신규 확진자 수가 14명을 기록하며 연일 10명 이상을 이어오고 있다.

최 시장은 대시민 호소문에서 “오히려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일부 방역이 해이해지는 경향이 있다”며, “여전히 최고의 방역은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라고 시민 방역 협조를 간곡히 요청했다.

또한, “‘설마 내가 걸리겠느냐’는 안일한 생각과 ‘나는 괜찮겠지’라는 무책임한 태도가 4차 대유행을 촉발시키는 직접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아직은 우리 모두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안양시의 백신 예방접종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나온 임상시험



결과나 외국의 접종 데이터를 보면 인플루엔자 백신과 비교해 코로나19 백신의 부작용이 크게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장 의료진이 접종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 백신 접종 여부를 판단하기에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원종균/기자

광주시, 나만의 행복 짬 스토리 영상 공모전 개최

광주시는 15일 ‘나만의 행복 짬 스토리 영상 공모전’을 오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달 31일 신동현 시장이 대한민국의 짬 먹거리 문화를 알리는 ‘짬 문화 캠페인’의 일환으로 기획됐으며 주제는 ‘짬과 관련된 재미있고 자유로운 영상’이다.

공모내용은 짬 관련 ASMR, 떡방, 요리, 브이로그 등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며 나만의 짬 레시피, 짬과 관련된 에피소드 등 짬을 주제로 1분 이상 3분 이내의 영상으로 만들면 된다. 단, 광주시 ‘자연채’, ‘BI’, ‘그리니, 크리니’ 이미지 중 1개 이상을 영상에 활용해야 한다.

응모자격은 제한이 없으며 접수기간은 4월 19일부터 5월 16일까지이다.

접수방법은 담당자 이메일로 영상(원본파일)과 응모서류를 제출하면되며 1명(팀)당 1개만 접수 가능하다.

선정방법은 부서평가 후 광주시 유튜브 조회수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며 결과발표는 오는 5월 31일 시 홈페이지와 수상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시상은 최우수상 1편(50만원), 우수상 1편(30만원), 장려상 1편(20만원), 노력상(10만원) 5편 등 총 8편을 시상한다.

심사기준은 참신성, 명확성, 작품

성, 활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할 계획이다.

신 시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미디어를 통한 짬 문화 캠페인의 전국적 홍보와 광주시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수/기자

나만의 행복 짬 스토리 영상 공모전
2021. 4. 19.(월) ~ 5. 16.(일)

공모주제 짬 관련 재미있고 자유로운 영상
- 주제: 짬, 떡방, 요리, 브이로그 등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며 나만의 짬 레시피, 짬과 관련된 에피소드 등 짬을 주제로 1분 이상 3분 이내의 영상으로 만들면 된다. 단, 광주시 '자연채', 'BI', '그리니, 크리니' 이미지 중 1개 이상을 영상에 활용해야 한다.

접수기간 2021. 4. 19.(월) ~ 5. 16.(일)
* 단,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접수방법 담당자 이메일로 영상(원본파일)과 응모서류를 제출하면되며 1명(팀)당 1개만 접수 가능하다.

선정방법 부서평가 후 광주시 유튜브 조회수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며 결과발표는 오는 5월 31일 시 홈페이지와 수상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시상 최우수상 1편(50만원), 우수상 1편(30만원), 장려상 1편(20만원), 노력상(10만원) 5편 등 총 8편을 시상한다.

심사기준 참신성, 명확성, 작품성, 활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할 계획이다.

문의처 031-760-2729 (2층 기획홍보팀)

용인교육지원청,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만들기’ 석면 이해 교육 실시

용인교육지원청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4월 15일 안양과천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석면 제거사업 추진교 학교 관계자를 대상으로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만들기’ 석면 이해교육을 실시하였다.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만들기’라는 목적으로 실시한 이번 석면 이해교육은 2021년도에 석면 제거사업 추진 예정인 용인 관내 2개교와 안양과천 관내 5개교 학교 관계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하에 진행되었다.

이번 석면 이해 교육에서는 석면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과 석면 제거사업 진행 시 적합한 절차, 잘못된 석면철거 및 올바른 석면철거 현장 사례 등의 구성으로 진행되었고, 교육 말미에는 사업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토의하고 질문을 주고받는 시간을 가졌다.

용인교육지원청 안정훈 교육시설과장은 “이번 교육으로 학교 석면 해체 제거 방향과 작업 과정에 대한 학교 관계자의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석면 해체 제거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석면공사에 대한 학교현장의 불안을 해소하여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수/기자

성남교육공동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온(溫)라인 포럼으로 통(通)하다

2021 성남교육공동체 교육격차해소 온라인 공감포럼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은 4월 15일, 성남교육공동체가 함께 모여 교육격차 문제를 짚어보고 해소를 위한 실천을 고민하는 온라인 공감포럼을 운영하였다. 이 포럼에는 교육격차 문제를 풍부하게 고민해온 학교 현장의 교원,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 및 참교육전국학부모회에서 활동하는 학부모를 패널로 참여하였다.

1부 패널 토론에서는 ▲ 개별 맞춤형 교육으로 교육격차 없는 미래교육으로의 전환을 시도하는 보편적 학습설계 ▲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학교의 역할 ▲ 인지부하의 최소화, 학생 중심의 새로운 학교 만들기를 통해 상호작용의 결핍을 극복하는 교육

과정 운영 ▲ 문화예술 교육과 사회성 교육, 체력과 운동능력 등에 대한 고려를 통한 교육 복구의 노력을 주제로 교육격차 해소 실천을 위한 다양한 접근을 공유하였다.

2부 지정토론에서는 지정토론자와 함께 온라인 포럼 참가자들의 실시간 질문을 중심으로 성남 지역에서 교육 주체들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온라인에서 포럼에 참여한 성남화랑초 박광숙 교감은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 문제를 교육의 본질을 찾아가는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어서 의미 있었다며, 학생들이 다른 양상으로 나타

나고 있는 결핍에 주목하여 학생 한 명 한 명을 살피는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이범희 교육장은 “교육격차 문제에 대한 성남교육공동체의 폭넓은 관심과 작은 실천들이 지속될 때 학생 누구도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온라인 공감포럼이 의미 있는 한 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교육격차에 대한 문제의식을 지역 교육공동체와 꾸준히 공유하며,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성남의 모든 학생들이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고 있다.

이성윤/기자

2021 성남교육공동체 교육격차해소 공감포럼
2021. 4. 15. (목) 15:00~16:30 | 온라인 ZOOM 참여

구분	주제	내용
주요진	조용정 연구위원 (경기교육연구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학습복지 실현
	이범희 교육장 (성남교육지원청)	위드코로나시대, 교육격차를 줄이는 학교의 역할
패널	박광숙 교감 (성남화랑초)	비대면 상황에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과정
	김민정 연구위원 (경기도교육연구원)	코로나19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학부주의 역할
진행	김민정 연구위원 (경기도교육연구원)	기초학력 향상 교육연구회
	이성윤 연구위원 (성남교육지원청)	배움의 공동체 연구회

참석방법 | ZOOM 회의 ID 912 096 4739, 암호 2021 (스마트폰에서 오른쪽 QR코드 스캔)
주최 |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의왕시, 아이디어 제안 공모 5월 14일까지 접수

의왕시에서는 시민들의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2021년 의왕시 아이디어 제안 공모전'을 5월 14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아이디어 공모는 시정발전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일자리, 주거, 교통, 환경, 복지 등 모든 분야에 대해 자유롭게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다.

시에서는 제안에 대한 관련부서 검토와 2차례의 심사를 거쳐 6월 30일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시상 결과에 따라 상장과 함께 최우수상 100만원(1명), 우수상 50만원(2명), 장려상 30만원(2명), 노력상 5만원(10명)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최종 심사를 거쳐 채택된 제안은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행정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신속하게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상원 기획예산담당관은 “시민의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반영되도록 시

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소통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하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원종균/기자

'우리가 만들어가는 행복 의왕'
의왕시 아이디어 제안 공모
접수기간: 2021. 4. 15.(목) ~ 5. 14.(금)

1차 심사 제안서 접수기간: 4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제안서 접수처: 의왕시 기획예산담당관실 (의왕시청 3층)

2차 심사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안서 접수처: 의왕시 기획예산담당관실 (의왕시청 3층)

시상 최우수상 100만원(1명), 우수상 50만원(2명), 장려상 30만원(2명), 노력상 5만원(10명)

응모자격 18세 이상 70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민
* 외국인, 외국계 기업, 공공기관, 교육·연구·의료·문화·체육·복지·사회복지·비영리·민간단체 제외

제안내용 의왕시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일자리, 주거, 교통, 환경, 복지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정책 제안

신청방법 ZOOM 회의 ID 912 096 4739, 암호 2021 (스마트폰에서 오른쪽 QR코드 스캔)
주최 |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대구 힐스테이트 달성공원역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업사이클 다시, 봄'展 오픈

광명시는 오는 17일부터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에서 '업사이클 다시, 봄' 전시회를 연다.

이번 전시회는 아트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소장품 기획 전시로 업사이클 예술 작품과 제품을 볼 수 있고 업사이클 제품 만들기, 미로 찾기 등 체험도 할 수 있다.

전시회는 총 4개 구역으로 나눠 열리며, 1전시실에는 우수상자를 업사이클한 공간으로 아트센터에서 운영하는 체험 프로그램 수강생 작품, 친환경을 지향하는 광명경기문화창조허브 기업의 업사이클 디자인 제품, 업사이클 아트 상품을 선보인다.

2, 4 전시실에서는 아트센터가 소장하고 있는 대형예술작품을 살펴볼 수 있다. 3전시실에는 폐나무와 반려견 폐비닐봉투를 활용한 이연

숙 작가의 '나무그늘(2020)'이 전시되며 이번 '업사이클 다시, 봄'전을 위해 새롭게 기획·제작된 작품이다. 나무그늘 작품은 방문객이 직접 작품 속에 들어가 미로를 찾는 체험을 할 수 있다.

특히 전시기간 중 주말에 방문하는 관람객은 현장 신청으로 업사이클 디자인 제품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다.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이번 전시회는 '업사이클 광명'아트센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영상으로도 만날 수 있다. 관람은 누구나 무료로 가능하며 관람시간은 매주 화~일요일 10:00~18:00 (매주 월요일 휴무)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전순희기자



구리시안승남시장, 봉선사로부터 전달받은 연꽃 식재 현장 살펴

연꽃으로 맺은 인연 봉선사 초격 주지 스님과 셋다리공원 방문

구리시는 지난 6일 교문동 셋다리공원 연밭 조성을 위한 연꽃 750여 본 식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지난해 7월 대한불교 조계종 25교구 본사 봉선사에서 코로나19 소멸 기원[연꽃향기 바람에 실어 님에게 보내드리오리다]라는 주제로 개최한 제18회 연꽃축제에 초청받아 참석하여 '구리시·봉선사 연꽃 나눔 전달식'을 가졌다.

봉선사에서 전달받은 연뿌리 750여 본은 구리시 교문동에 위치한 셋다리공원의 수질정화와 환경개선을 위해 식재됐으며, 안승남 구리시장은 지난 9일 연꽃으로 인연을 맺은 봉선사 초격 주지 스님과 함께 연꽃을 식재한 셋다리공원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봉선사 초격 주지 스님은 "안승남 시장님의 시민을 사랑하는 마음과 행복을 추구하는 모습이 아름다워 봉선사와 좋은 인연을 맺게 되었다"며 "봉선사에서 전달한 연꽃을 통해 구리시민이 더 행복해지길 바란다"

고 말했다.

또한 함께 참석한 구리시의회 임연옥 부의장은 "구리시에도 연꽃 향기가 가득한 아름다운 공원이 조성되어 기쁘다"며 소감을 이어갔다.

안승남 시장은 "봉선사의 연꽃 나눔으로 정각사 앞에 시민을 위한 연밭을 조성하게 되었다"며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앞으로도 봉선사와의 연꽃 인연을 잘 이어가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번 셋다리공원에 식재한 연뿌리는 7~8월경 개화 예정이며, 연밭 조성을 통하여 지역 주민들의 활발한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면서도 수질정화 능력까지 뛰어나 옛날부터 생명의 창조, 번영의 상징으로 사랑받아온 수생식물로서 무더운 여름철에 만개하고 은은한 향기를 느낄 수 있다.

최만식기자

경기도,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 휴게권 보장 공론화 나서, 20일 국회 토론회

경기도, 20일 오전 10시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토론회 개최

민선7기 경기도가 추진하는 '청소·경비 등 취약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정책과 관련, 취약노동자 휴게권 보장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제도적 방안 마련을 위한 공론의 장이 열린다.

경기도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국회의원, 민간전문가가 함께하는 '청소·경비 등 취약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청소·경비 등 취약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에 대한 정책제안과 전문가 토론을 통해 관련 사업의 성과와 중요성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향후 과제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벌인다.

강득구, 강민정, 강은미, 김남국, 김병욱(분당울), 김연배, 김영진, 김윤덕, 김주영, 김한정, 김홍걸, 노용래,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박상혁, 백혜련, 서영석, 설훈, 소병훈, 송옥주, 심상정, 안호영, 양이원영, 용혜인, 윤후덕, 이규민, 이동주, 이상현, 이수진(베레), 이재정, 이학영, 임종성, 전용기, 정성호, 정춘숙, 조오섭, 조은천, 홍기원, 홍정민 등 41명의 국회의원(가나다 순)이 공동 주최자로 동참해 국회 차원의 관심과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토론은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이 '경기도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을, 남우근 사회노동정책연구위원이 '노동자 휴게시설 관련 법제도 개선 필요성'을 각각 발표한 후 전문가 토론을 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임상혁 녹색병원장이 좌장을 맡고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 이용우 법무법인 창조 변호사, 전선미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조직실장, 김규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김경현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토론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별도 방청객 없이 '소셜방송 LIVE경기(live.gg.go.kr)'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된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경기도는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인간적인 환경에서 휴게권을 보장 받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청소·경비 등 노동자들의 현장 여건을 보다 꼼꼼히 살피고 의견들을 수렴하여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민선7기 출범 이후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현재까지 공공부문은 도와 공공기관 총 108개 사업장 내 172개소의 휴게시설을 개선했고 민간부문은 대학 및 아파트 휴



게시설 57개소를 신설·개선하는 한편 2021년 149개소를 추가로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공공기관 및 31개 시군 평가에 휴게시설 개선 평가항목

을 신설, 해당 기관의 적극적 동참을 유도함으로써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고 제도 지속성을 보장하는 조치도 취하고 있다.

최근수기자

고양시, 언택트 환경캠페인 '에코플로킹' 진행

고양시 여성회관은 오는 17일 환경 캠페인 행사 '에코플로킹'을 진행한다.

'플로킹'이란 스웨덴어 plope(줍다) + walking(산책하다)이 합쳐서 생긴 신조어로 '산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다'는 뜻이다.

이번에 진행되는 '에코플로킹'은 가족이나 친구 2~4명으로 구성된 팀이 관내 공원이나 산, 호수, 하천을 선정해 쓰레기를 줍는 행사다. 5인 이상 모임·집합이 불가한 현 상황에서 온라인(zoom)으로 다른 시민들과 소통하며 환경을 위한 작은 실천을 할 수 있다.

'지구의 날(4/22)'기념으로 기획된 이번 캠페인은 고양시민 100명이 함께하며, 40개 팀별 참여 동기 인터뷰, 퀴즈, 산책 장소 소개 등 고양시의 아름다운 생태환경에 대해 언택트 방식으로 소통하는 새로운 방식의 행사다. 진행자는 KMA한국능력협회 교수이며 삼성전자 신제품 전문프리젠테인 (주)인사이트로드 대표 김광영 MC·강사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고양시 곳곳

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연결돼, 코로나 시대 비대면 방식으로도 서로가 함께할 수 있음을 느끼는 행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영기기자



모두를 위한 안전벨트, 양쪽 귀에 걸어주세요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우리의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위해 모두가 함께 마스크 착용에 동참해 주세요.



KTX-이음 타고 즐기는 안동시티투어!

안동시와 코레일은 이달 15일부터 KTX와 연계한 시티투어 여행상품 5종을 판매한다.

각 상품은 KTX를 타고와서 안동 시티투어버스로 관광을 즐기고 돌아가는 형태이다. 주간·야간 도심테마투어, 하회마을투어, 도산서원 & 만휴정투어, 안동떡담투어 5개 코스다.

상품마다 열차예약상황에 따라 KTX이음요금에 5~30%까지 할인된다. 추가로 1인당 20,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숙박쿠폰과 3,000원 시티투어 이용할인쿠폰, 5,000원 지역할인상품권까지 받을 수 있다.

방역수칙과 사회적거리두기 규정을 준수하여 5인 이상이 동시에 예약할 수 없고, 여행 기간 내내 발열체크·명부작성·개별식사가 철저하게 이뤄진다.

안동시티투어 주간도심 테마코스는 지난달 6일(토)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3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일요일 정기적으로 운행한다. '청량리-안동' 구간 KTX의 도착·출발 시간에 맞춰 11시 30분에 안동역에서 출발해, 오후 5시 30분에 같은 장소에서 여정을 마무리한다.

주요코스는 '안동역' ▶ 안동찜닭골목 ▶ 월영교 ▶ 낙강물길공원 ▶ 안동댐 정상부(황단) ▶ 임청각 ▶ 안동소주전통음식박물관(시음) ▶ 안동역'이다.

안동시티투어의 주요테마는 힐링이다. 이에 더하여 '보는 관광'이상의 '즐기는 관광'을 위해 코스마다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미식투어를 원하는 관광객은 시티투어 주간도심테마코스에서 즐길 수 있는 '반반메뉴(안동찜닭+간고등어)'를 놓쳐서는 안 된다.

2020년 여름여행지 설문조사에서 안동시를 전국 16위(최초진입)로 검증 뛰어오르게 만든 1등 공신인 낙강물길공원(비밀의 숲)도 물론 포함돼 있다.

낙강물길공원의 오솔길을 따라 봄내음을 만끽하다보면 어느새 안동시티투어가 야심차게 준비한 안동댐 정상부에 이를 수 있다.

정상부를 전전히 횡단하며 왼쪽으로 넓은 바다와 같은 안동호의 광활함을 보고, 오른쪽으로 안동시 도심 전체를 내려다보면 가슴이 시원하게 뚫리는 경험을 할 수 있다.

본격적인 관광철인 5월부터 월영교, 낙강물길공원 일대에서 열릴 마술·마임 공연은 평온하기만 할 것 같은 안동관광에 생동감을 불어넣을 것으로 본다.

야간도심테마투어에 5월~10월 매주 금·토 운영을 목표로 알찬 상품을 만들고 있다. KTX를 연계한 시티투어상품 판매 및 관련 정보는 코레일 및 안동시티투어 홈페이지를 통



해 각각 확인할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코레일과 KTX 시티투어상품을 시작으로 다양한 연계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안동의 숨을 테마로 한 여행, 고백 중부에게 에델·요리를 배우는 중부스쿨 등 고 품격 프로그램도 포함된다. 또한, 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된 KTX연계 안동여행 패키지상품인 나만의 카드도 곧 출시 예정이며, 기차, 역사(驛舍), 온·오프라인 홍보매체 등 KTX와 관련된 모든 영역과 관

광을 연계하고자 한다."며 KTX활용 관광마케팅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교통 접근성이 떨어진다든 이유로 저평가되었던 안동관광이 KTX를 맞이하며 날개를 달았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공격적 마케팅이 어려운 시기에 불구하고, 철저한 방역을 기초로 한 소규모 관광케 유치를 추진해나가는 안동시의 노력이 돋보인다는 평이다. 김세기기자

문경시, 문경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용역개발계획 중간보고회 개최

문경시는 4월 14일 문경시청 대회의실에서 '문경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용역 개발계획'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고윤환 시장을 비롯해 시의회 김창기 의장, 도의회 박영서 의원, 시의회 이경걸 부의장, 서정식 운영위원장, 진후진 총무위원장, 황재용 산업건설위원장, 탁대학 의원, 김인호 의원, 남기호 의원, 박춘남 의원, 정책자문단 정영모 단장, 변동식 고문, 지역발전협의 회 지흥기 의장, 김영길 부시장 외 관련 실·과·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되었으며, 개발계획 수립 단계 중 문경역세권 개발사업을 통해 민간유치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할 수 있는 다각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뜨거운 토 의의 장을 만들

었다. 문경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올 8월까지 개발계획 수립을 조기에 완료하여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연말까지 실시계획 인가까지 완료하여 토지분양을 조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성공적인 역세권사업이 될 수 있도록 조속히 관련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기관 이전 및 민자유치에 대한 지원방안 관련 조례 제정도 준비 중에 있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문경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공공기관 이전 및 민자유치를 위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이로 인해 문경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반식기자



대구시 '우문현답!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대구시는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규제애로와 시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산·학·연·관 협의체로 구성된 '찾아가는 지방 규제 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산업 및 민생현장을 찾아 규제 개선 과제를 집중 발굴 심층 논의하는 현장 밀착형 '우문현답*' 규제혁신 합동간담회를 상시적으로 추진한다.

그동안 '찾아가는 지방 규제 신고센터'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경영 고충사항 면담과 규제 개선 논의 및 문제 해결 등을 위한 대민 창구 역할을 해왔다.

올해는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녹여 시의 전략사업인 5+1산업(미래형자동차,로봇,물,의료,에너지+스마트시티)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기업지원 및 자영업자 등의 시민 생활 안정에 규제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공사·공단 ▲산·학협력단 ▲재단 ▲조합 ▲협회 등 지역 유관기관 및 직능단체 등과 상호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산업별, 전문분야별 합동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발굴과제는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제로(ZERO) 민·관협력 네트워크(37개 지역단체) ▲기업 및 주민참여단(20명) 등이 함께 참여하는 논의 과정을 거쳐 과감하게 규제를 개혁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 행진으로 지난 3월 지역공단(7개 산업단지)과 합동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공단 입주 및 협력업체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4월에는 대구권역 대학의 산·학협력단(17개 대학), 5월에는 직능단체인 지역협회(14개 협회)와 순차적으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추후 유관기관 및 협회, 재단 등과 매월 정기 간담회를 진행해 현장 중심의 규제 개선 과제들을 집중 발굴 논의한다.

한편 이와 별도로 시민들의 규제 관련 건의사항은 상시 접수하고 현장 방문 후 시에서 해결 가능한 사항은 관련 부서와 신속 협의하고, 법령 개정 사안은 중앙부처와 협업, 개선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로 규제 개혁 제과도를 높일 계획이다. 지난 2018년 산업현장의 신속한

규제정비를 위해 발족한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는 산업, 민생현장과 개별기업을 수시 접촉 방문해 2019년 9개 안전(38건 발굴)의 규제를 정비하고,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여건의 어려운 상황에도 '스마트시티 실현을 위한 도 로상 작업구 관리제도 개선*' 등 4개 안전(18건 발굴)의 규제해결 실적을 거두었다.

특히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0년 전국 규제혁신 경진대회에서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발굴 안전인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시장진입을 위한 과금형 콘센트 규제혁신' 사례로 특별교부세 5천만원(우수상 수상)을 교부받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도 했다.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규제혁신은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며 "시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직접 듣고, 시민들이 규제혁신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규제 개선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남궁영기자

영양읍지역사회보장協, 관내 착한가게 2곳 현판 전달

15호점 참새소주방, 16호점 장모님 손맛 식당

영양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4월 13일 관내 착한가게 2개소를 방문하여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사람의 열매 착한가게는 중소기업의 자영업에 종사하며 매월 매출액의 일정액을 기부하는 정기 기부 캠페인으로 15호점 참새소주방, 16호점 장모님 손맛 식당이 동참하게 되었다.

참새소주방은 "이렇게 좋은 일에 참여하게 되어서 기쁘다. 작은 걸음으로 보일 수 있지만, 우리 사회가 보다 따뜻한 세상으로 나아가길 수 있는 한 걸음이 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하였으며, 장모님손맛은 "코로나19로 손님이 많이 줄어서 여전히 어려



운 상황이지만, 모금된 기부금이 관내 소외계층을 위해 사용된다고 하여 나눔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또한 착한가게에 걸맞은 인심 넉넉한 가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김상준 공공위원장은 "착한가

게의 정기적 기부는 가장 착한선물이다."며 "모두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한결같이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해주시어 감사하다."고 전했다. 김세기기자

대구시설공단 명복공원, 2021년 제1회 치유전시회 개최

4월 16일 ~ 5월 31일, 유족과 시민들을 위한 전시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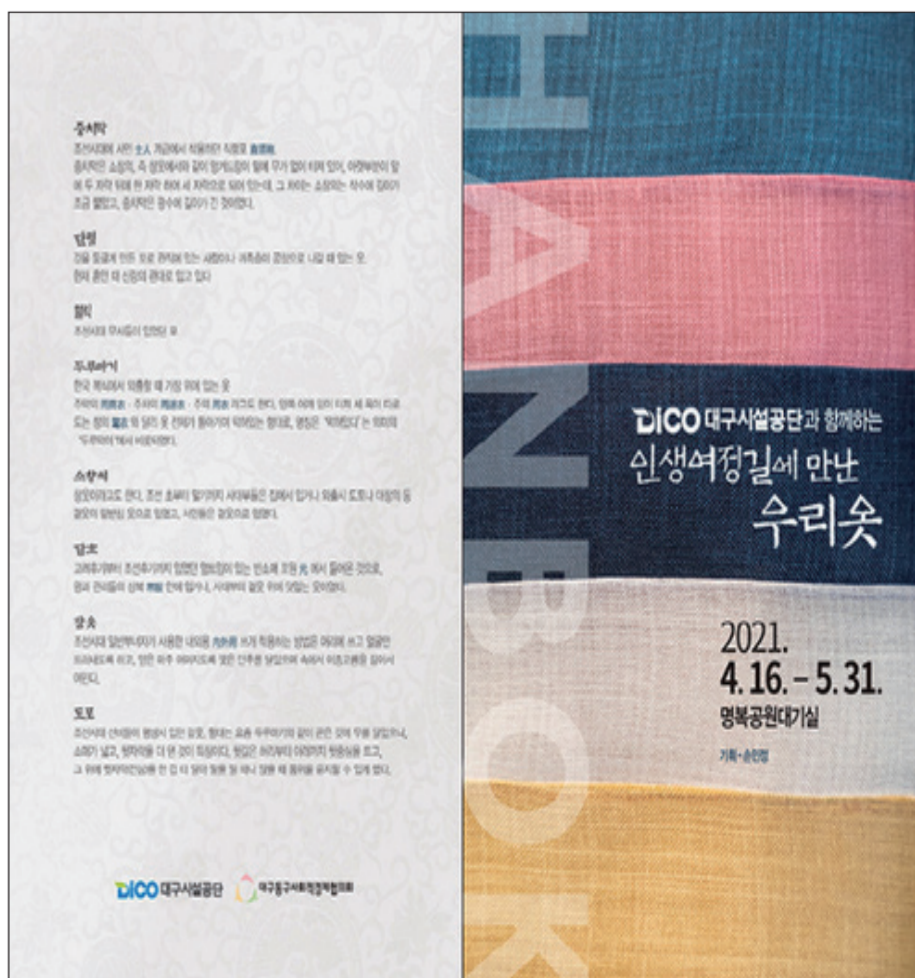
대구시설공단은 명복공원을 이용하는 유족과 고객들을 위한 2021년 제1회 치유전시회를 4월 16일부터 5월 31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생여정길에 만난 우리웃'이라는 타이틀로 개최되는 이번 전시회는 대구동구사회적경제협의회 소속 이숙경, 윤용임, 김미정, 신애자, 조영남 작가의 재능기부로 이뤄졌다.

작품은 중치막, 단령, 두루마기, 장옷, 도포 등 우리웃 20점으로 명복공원 목련대기실 등 3개 공간에 전시되어 볼거리를 제공한다.

이번 전시회를 기획한 명복공원은 "서비스 환경을 개선하고 예술작품을 통해 유족들을 위로하고 삶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개최의도를 밝혔다.

대구시설공단 김호경 이사장은 "2017년 처음으로 시작한 치유전시회가 벌써 5년을 맞이했다."며 "명복공원이 지역주민을 위한 추모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유족들이 공간안 위로의 시간을 가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남궁영기자



포항시, 학대피해아동 즉각분리제 시행 관련 보건복지부와 간담회 개최

포항시는 14일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의 방문에 맞춰 학대 피해아동 즉각분리제 시행(3월 30일)에 따른 시·도, 시군구 이행사항 간담회 및 현장방문 시간을 가졌다. 양 차관의 포항 방문은 분리아동의 보호공백 방지와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추진상황 확인을 위해 이뤄졌다.

특히, 이강덕 포항시장은 간담회에 앞서 양 차관에게 '공공의료중심연구 의과대학'유치를 비롯해 코로나19 위기 지출에 따른 예산 추가지원 등을 건의했다.

포항 뿐 아니라 대구·경북 지역민에게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중 전염병 대응 의료기관 역할을 할 의과대학 유치 당위성과 소비위축 등 휴폐업 증가에 따른 경제위기로 긴급복지 추가 지원이 절실함을 적극 알렸다.

간담회에서 경상북도는 즉각분리제도 시행 이후 아동학대 대응을 위한 시·도 이행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 영상보고를 했으며, 포항시는 아동보호 체계 추진현황 보고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복지시설

관계자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통한 건의사항 등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학대 피해로 인해 즉각 분리된 아동을 보호하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듣는 일정으로 진행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현장 최일선에서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아동보호를 위해 애써주시는 공무원들을 비롯해 아동보호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에게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양 차관은 이어 △아동학대 현장에서 초기대응 △공백 없는 아동보호 인프라 확충 △피해자 심리회복 및 일상회복 지원 등의 차질 없는 수행 △아동학대 현장에서의 적절한 조치 등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병삼 포항시 부시장은 "간담회에 참석해주신 아동보호시설 및 관계자들에게도 감사드린다"며 "유관기관과의 협조 하에 아동보호 공공화 조기정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포항시는 아동보호체계 개

편에 따라 지난해 7월 아동보호팀을 신설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또한, 24시간 아동학대 대응을 위해 신고전용 클라우드 콜센터 설치, 9명의 전담공무원 배치로 현장출동, 조사 등의 실질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긴급한 의료진단을 필요로 하는 학대아동의 진단을 위해 전국 최초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포항성모병원)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김기현기자



창원시, 덕동 물재생센터 ‘지구의 날 기념 홍보주간 운영’ 계획 발표

창원시 하수도사업소는 오는 22일 ‘제51회 지구의 날’을 맞이하여 하나뿐인 지구를 위해 덕동 물재생센터의 수질관리 강화를 위한 「지구의 날 기념 홍보주간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슬로건으로 ‘생활하수 줄이기, 지구사랑 실천해요!’로 정하여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로 739에 소재하고 있는 덕동 물재생센터는 오는 15일부터 22일까지를 ‘지구의 날 홍보 주간’으로 설정 운영한다.

먼저, 시책의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 생활하수 줄이기 실천수기 및 마산만 수질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실시(오는 28일까지 접수) △ 淸(淸) 하수처리시스템으로 재생된 최종방류수를 시설내 공정시설과 물레방아, 인공하천 운영시 재사용 △ 최종 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수선 공사 △ 유입수 및 방류수 수질 모니터링 강

화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사업소는 지구의 날 특수 시책으로 ‘생활하수 다운(Down), 지구사랑 업(Up) 캠페인’ 즉, 생활하수는 줄이고(Down ↓), 지구 환경 보호는 올리고(Up ↑)를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또, 생활하수 줄이기 위한 시민실천 사항으로 △ 컵에 물을 받아서 양치하기 △ 수도수압 약하게 틀어서 사용하기 △ 비누칠할 때는 수도꼭지를 잠그고 손을 씻으면 평소보다 6리터의 물을 절약할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홍보한다.

한편, ‘지구의 날(Earth Day)’은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해상기름 유출사고를 계기로 1970년 4월 22일 미국에서 게이로드 닐슨 상원의원이 주창하고 당시 대학생이던 데니스 헤이스가 발벗고 나서 지구의 날 행사를 개최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시민단체 주도로 1990년에 서울 남산에서 처음으로 지구의 날 행사가 개최된 이래 다양한 환경문제를 주제로 매년 기념 행사를 갖고 있다.

박영화 창원시 하수도사업소장은 “덕동 물재생센터에서는 시민이 배출하는 1일 50만톤의 생활하수를 맑게 정화하여 마산만으로 방류하고 있다”며 “생활하수 줄이기의 중요성을 알려 공공하수처리시설 오염물질 부하량을 억제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관리에 만전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남궁영기기자



사천시, 생체정보 이용 가축질병 및 분만 조기진단 시범사업 추진

가축질병 및 분만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조기대응

사천에서는 스마트폰으로 가축의 질병 예측부터 출산 관리까지 한다. 사천시가 가축농가의 효율적인 관리와 소득향상을 위해 ‘2021년 생체정보 이용 가축질병 및 분만 조기진단 시범사업’을 추진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사업비 3천만원(도비 30%, 시비 50%, 자부담 20%)으로 2월25일부터 4월14일까지 관내 2개 가축농가에서 생체정보 이용 가축질병 및 분만 조기진단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경상남도농업기술원의 지원을 받은 이번 시범사업은 생체정보 활용 개체관리를 통한 가축상태 파악 및 질병조기 진단을 위해 추진된 것.

축우에 ‘스마트 알약’을 투입하고 ‘센서부착 목걸이’를 착용하면, 실시간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소의 체온, 활동량, 건강, 발정, 분만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시는 각종 질병의 조기감지로 예방·조치가 가능해 축산농가의 수익률이 증대하고, 끊임없는 케어로 관리의 연속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관리자의 노동력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회를 추후에 개최해 축산농가들의 평가결과와 만족도가 높을 경우 도내 전 시군에 시범사업 추진결과를 적극 공유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축산분야 R&D 성과의 신속한 현장 확산으로 축산기술 혁신 및 농가소득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영훈기자



거창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거창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유지 관리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군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여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피난시설 확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율 소방안전관리체제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신고대상은 문화·집회시설과 판매시설, 노유자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의료시설에 대해, 피난·방화시설을 폐쇄(잠금)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 비상구·피난 통로 물건 적치 및 장애

물 설치, 소방시설 등을 훼손·방치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누구든지 불법행위를 목격할 때 관할 소방서에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고자에게는 현장 확인과 신고포상심의회를 거쳐 포상금이 지급되게 된다.

서석기 서장은 “소방시설 불법행위는 화재 등 재난상황 시 생명 및 재산피해를 확대할 수 있다.”라며 “군민 모두가 안전의식을 가지고 자율적인 관리를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최광용기자



양산시, 시립 중앙도서관 ‘인류를 구한 12가지 약 이야기’

현직 약사, 정승규 작가와의 만남 운영

양산시립 중앙도서관은 정승규 작가와의 만남을 5월 2일 일요일 오후 2시 중앙도서관 관설당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작가와의 만남은 코로나-19로 질병 및 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시민들에게 의약품 관련 지식과 인문독서를 장려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코로나 상황에 따라 비대면으로 전환 운영될 예정이다.

‘인류를 구한 12가지 약 이야기’이라는 책으로 진행되는 작가와의 만남은 수많은 약들은 도대체 언제,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로, 마취제에서 항암제까지 고통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준 치료약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한다. 정승규 작가는 현재 부산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현직 약사로 부산시 약사회에서 매월 발간하는 약사회보에 다년간 글을 기고하고 있다. 어릴 때부터 역사책 읽기를 좋아했다는 작가는 『인류에게 필요한 11가지 이야기』, 『25가지 질병으로 읽는 세계사』를 집필했다.

작가와의 만남은 4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홈페이지 및 전화,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고등학교 이상의 양산시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서관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

거나 중앙도서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남궁영기기자



산청약초시장이 봄철 가족건강 챙기세요, 산청사랑상품권페이백 이벤트

산청약초시장이 나른한 봄철 가족건강을 챙길 수 있는 약초제품 특판 행사를 진행한다.

산청군과 산청약초시장변영회는 16일부터 5월9일까지 산청IC 인근 산청약초시장 일원에서 봄맞이 페이백 이벤트 등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산청약초시장 내 판매장과 경남생약농업협동조합 매춘판매장에서 진행되며 약초 등 제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5만원 당 1만원의 산청사랑상품권을 증정한다.

행사기간 동안 1인 사용액 합산 기준이며, 당일 최대 2매까지 증정한다. 상품권이 소진될 때까지 운영한다.

특히 군은 새로운 온라인 마케팅 방식으로 떠오르고 있는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 약초시장 입점업체를 홍보하는 한편 제품 이미지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온라인 클라우드 펀딩은 5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개 업체를 선정해 펀딩을 진행한다.

또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산청약초시장을 찾는 방문객에게 봄약초의 아름다움을 볼거리로 제공하기 위해 30여종의 약초화분 60개를 판매장에 전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봄맞이 약초 특판행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산청약초시장에 활기를 가

져다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한방향화산업의 기반이 되는 약초 생산의 기반을 탄탄히 다지기 위해 전략약초 육성과 지원사업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청군은 ‘산청 한방향화산업단지’가 경남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지역내 한방약초산업의 생산·유통 체계를 고도화 하는 한편 향화노화 관광 인프라를 확충,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2019년부터 매년 ‘약초생산 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약초생산 기반조성사업’은 지역 내 약초 생산 농가들이 전략약초는 물론 이외의 약용작물도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방약초 안정생산 지원’과 ‘전략약초 특화단지 조성’이 주요 골자다. ‘전략약초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가공 및 제품개발이 용이한 도라지, 하수오, 홍화, 초석잠 등 4개 품목을 산청군 전략약초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한방약초 안정생산 지원사업’은 전략약초 4개 품목을 제외한 약용작물 재배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약초 재배에 필요한 종자(종근, 모종)와 피복용 농자재 등을 지원한다.

최광용기자

www.yyg.go.kr

Natural Food From Yeong Yang To You 자연이 살아 숨쉬는 영양에서 전국 최고의 농·특산물을 만나보십시오

영양을 맛보다

해마다 서울광장을 붉게 수놓는 명품 영양고추에서, 당도 높은 사과와 자연이 길러낸 온갖 농특산물까지 기다려오신 내추릴 푸드를 만나실 때가 되었습니다. 땅의 가치, 우리 것이라는 자부심, 믿고 먹는 품질로 영양만큼 대한민국이 식탁에 영양군민이 함께합니다

전라남도의회, “서해안철도, 제4차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돼야”

김한중 전라남도 의회 의장,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건의문 채택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한중)는 서해안 철도(새만금~목포)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치한 메종클래드 호텔에서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이 참여한 가운데 제3차 임사회를 개최하여 법령(제도) 개선과 지역발전 관련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주요 현안 보고 3건을 포함해 시·도의회와 협의회에서 제출된 상정안건 18건에 대한 심의·의결, 시·도의회 현안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한중 의장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에서 “장항선을 목포까지 연장하는 서해안 철도 건설사업은



서해안권 경제협력벨트 구축과 이를 통한 환경해운 시대 준비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을 통한 사업 추진은 대량수송 및 물류비 절감을 통한 기업유치와 지역관광자원과 결합한 서해안권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서해안 철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 건의’등 시·도의회에서 제출된 상정 안건은 참석자들의 의견 교환을 통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됐으며, 의결 채택된 건의문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명의로 국회와 해당 중앙부처에 전달된다.

협의회장 자격으로 회의를 주재한 김한중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3.3 사건을 포함한 현대사의 많은 질곡과 아픔을 가진 제주에서의 임시회 개최를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내년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을 앞두고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시·도의회의 다양한 역할이 필요한 지금 시도의회 의장님들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김영만/기자

영암군, '농' 특산물전, 롯데백화점 강남점에 열려'

영암군은 서울 롯데백화점 강남점에서 '영암군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개장했다.

서울 롯데백화점 강남점 직거래장터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을 돕고 도시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롯데백화점, 전라남도, 재경 광주전남향우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행사이며 이에 영암군이 참여하여 뜻을 함께했다.

지난 4월 10일에 열린 영암농특산물전 개장식에는 전동평 영암군수, 고천수 군의원, 김원식 서영암농협장, 양무승 재경 영암군향우회장을 비롯한 향우회원, 참여업체, 관계자 등 약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달 15일까지 운영되는 직거래장터에 영암군에서는 명품 특산물인 무화과 인절미, 무화과 요거트, 유기농 쌀(하이머문 쌀), 장미, 프

리지아, 금어초, 영암 매력한우 등을 행사기간 동안 최대 30%까지 할인 판매한다.

또한, 롯데백화점을 찾는 고객에게 지난 1일 개관하여 영암의 우수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인 “기찬들영암몰”을 집중 홍보하는 한편, 영암 농특산물 구매 고객에게 유기농 샘플쌀 제공과 꽃나눔 행사도 함께 펼쳤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영암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백화점 고객에게 널리 홍보하기 위해 서울 롯데백화점 강남점에서 영암 명품 농특산물전을 개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대도시 직거래 행사에 참여해 영암 월출산의 기(氣)를 받고 자란 영암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장성군 “군민 재산 담긴 공간정보… 보안 강화한다”

안전체계 구축 로드맵 운영… 정보 관리, 활용능력 등 향상 중점

장성군이 공간정보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로드맵을 수립했다. 공간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는 물론, 이를 운용하는 공직자들의 보안의식 강화를 통해 군 공공행정서비스의 신뢰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간정보는 지도 상에 표현되는 지형, 건물, 인공시설물 등 ‘공간’에 관한 모든 정보를 일컫는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활용이 늘어나면서, 보안의 중요성 역시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장성군은 시설 관리, 자료 관리, 시스템 관리, 사용자 마인드(mind, 사고방식) 관리의 4단계로 구성된 안전체계 구축 로드맵을 체계적으로 운영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올해에는 내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마인드 관리를 중점 추진한다. 공간정보 플랫폼 사용자 교육을 실시해, 정보의 보호 및 관리뿐만 아니라 활용능력까지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다. 이와 함께, 장성군은 자료유출방지

시스템을 구축해 자료의 위·변조 및 불법유통을 방지하고 있으며, 원격 지백업시스템을 운영해 예측 불가능한 사고나 장애 발생에도 대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행정 전반에 걸친 공간정보 활용도가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앞으로도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와 철저한 보안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오홍근/기자



최대 규모 편백숲 보유한 장성군, 국내 최초 '숲배움터(LEAF) 국제인증' 획득

덴마크 환경교육재단(FEE) 수여... 아시아에서 세 번째 '쾌거'

장성 축령산 편백숲이 국내 최초로 덴마크 환경교육재단(FEE)으로부터 '숲배움터(LEAF, Learning about Forests) 국제인증'을 획득했다. 국제적으로는 29번째 사례로, 아시아에서는 일본, 몽골에 이어 세 번째다.

축령산 편백숲은 국내 최대 규모의 인공조림지다. 편백나무는 스트레스 해소와 우울증 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지녔다. 산림청도 이같은 치유 효과를 인정해, 지난 2010년 축령산을 '치유의 숲'으로 지정한 바 있다.

숲배움터 국제인증을 수여한 환경교육재단은 덴마크 코펜하겐에 본사를 둔 국제적인 비영리단체다. 현재 전 세계 77개국에서 환경보호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인증은 크게 프로그램 인증과 시설 인증으로 나뉜다. 프로그램 인증은 숲의 생태를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각종 놀이 및 교육활동을 국제적으로 인증받는 것이다. 시설 인증은 이러한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에 부여한다. 장성군이 획득한 '숲배움터 국제인증'에는 프로그램과 시설 인증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번 국내 최초 숲배움터 국제인증으로, 장성군은 환경친화적인 체험교육 중심지로 새롭게 각광받게 됐다. 나아가, 군이 축령산 일원에서 추진 중인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축령산편백숲공간재창조사업, 축령산하늘숲길조성사업 등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코로나 시대 치유 여행지로서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국내 최초 숲배움터 국제인증을 통해 축령산 편백숲이 자연과 인간의 지속가능한 공존을 위한 새로운 배움의 장으로 주목받게 됐다”면서 “국가의료시설인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과 건강강진환경 먹거리 산지로 유명한 엘로우시티 장성이 ‘대한민국 힐링 1번지’로 나아가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홍근/기자

장흥군 용산면, 버려진 공한지가 예쁜 소공원으로

장흥군은 14일 용산면에서 ‘남상천 주변 환경정화 및 나무 심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그동안 주민과 관광객의 불법 쓰레기 투기 등으로 방치되어 있던 월산재 앞 폐도부지 내 공한지를 정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행사에는 지역 사회단체를 비롯한 주민과 용산면 직원이 참여하여 공한지 내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잡초가 무성했던 땅을 복토하여 남천나무 900본, 영산홍 600본 등 총 1,500본을 식재했다.

특히 이날은 소식을 들은 인근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정화 활동에 참여했으며, 용산면 번영회에서는 복토에 필요한 흙을 운반하기 위한 덤프트럭을 지원했다. 마을 이장들은 개인 굴삭기를 동원한 재능기부를 하여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그동안 버려져 방치됐던 폐도부지 내 공한지는 쓰레기 불법 투기 장소의 온상으로 지목되어 지역민들로부터 우려와 함께 정비 건의가 잦았던 곳이다.

행사에 참석한 김성호 용산면 번영회장은 “바쁜 일정에도 참여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용산면이 될 수 있도록 번영회를 비롯한 사회단체가 적극적으로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정준순 장흥군수는 “오늘 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해 주신 용산면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군민 여러분 각자가 숲선수범하여 청정장흥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김장길/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 “장흥 농업인의 영농 개선을 위해 다목적 농촌용수·배수개선 사업 결실을 맺다”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는 지난 7일 『상금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사업(324억 원)』 세부설계 착수 및 『가학지구 배수 개선사업(160억 원)』 기본계획 대상지구 선정 소식을 알렸다.

올해 배수 개선사업 기본계획 대상지구로 선정된 장흥군 대덕읍 가학지구는 남해 조위 영향으로 홍수 시 신속한 홍수량 배제가 어려워 192ha의 농경지에 상습적인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배수장 5개소, 배수로 1.8km를 설치하여 농경지 침수에 대비하고자 하는 계획이다.

또한 세부설계 착수지구로 선정된 상금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사업은 장흥군 용산면 상금지구 일원 수리시설물의 노후화 및 용수 공급 능력이 부족하여 가뭄 피해가 극심한 257ha의 농경지에 저수지 1개소, 양수장 1개소, 용수관로 14.3km를 신설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급히 선정된 2개 지구는 지역 주민들의 가뭄과 침수 민원이 제기된 이후, 장흥 농업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김승남 국회의원, 정준순 장흥군수와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통

한 지속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신규 지구로 선정될 수 있었다.

향후 대상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안정적인 영농환경 개선으로 지역의 경제 발전과 복리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장길/기자



목포시, 핑크물리 식재 자제 당부

목포시가 핑크물리 식재 자제를 당부했다.

핑크물리는 미국이 원산지인 벚과 식물로 역사와 비슷한 모습에 파스텔톤 분홍빛을 띠어 최근 몇 년 사이 인기를 모아 전국의 공원과 관광지 등으로 확산됐다.

하지만 핑크물리는 환경부가 지난 2019년 12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태계위해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생태위해성 2급’으로 평가받았다.

생태위해성 2급은 생태계 위해성이 보통이나 향후 생태계 위해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확산정도가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는 생물을 일컫는다.

환경부는 자연생태계 유출·확산 등의 우려가 있을 경우 추가 위해성 평가를 거쳐 법정관리종 지정 여부

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하천, 공원 등에 핑크물리 식재를 자제하고 가급적 국내 자생종을 식재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목포시는 정부의 요청에 따라 핑크물리 식재를 하지 않고 있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정원, 화단, 화분 등에 핑크물리 식재를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김동일/기자



따뜻한 나눔 실천 '익산나눔기부공간' 호응

나눔공간 3개월 만에 6천여명 혜택, 하루 평균 425명 접수

도내 최초로 운영을 시작한 익산 나눔공간이 폭발적인 호응을 얻으며 포스트코로나 시대 위기가구 지원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시민들의 자발적 기부로 운영되는 나눔공간은 3개월여 만에 5천명이 넘는 시민들이 지원을 받았고 기부 물품도 4억원을 돌파하며 지역사회 연대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

시는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나눔공간과 긴급 생계지원 혜택을 더한 '익산형 복지지원 대책'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위기가구 지원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정부 긴급지원의 한계를 보완한 나눔공간은 개장 3개월 만에 5천644명이 혜택을 받았다. 지원된 물품은 2억8천만원 상당에 달한다.

현재 하루 평균 425명이 지원 접수를 하고 있으며 대기자만 1천554명에 이르고 있다. 이 때문에 익산형 복지나눔마켓·뱅크는 대기 시간이 장기화되고 있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이를 보완한 '찾아가는 나눔공간'을 운영하기도 했다. 월광·부송·동산종합복지관에서 운영된 나눔공간으로 2천682명의 시민이 지원을 받았다.

나눔공간이 시민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는 이유는 복잡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시켰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실직과 휴폐업, 질병 등으로 위가 상황에 직면한 시민이면 현재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간단한 신청서만 제출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가구당 1회에 한 해 이용 가능하며 나눔공간에 직접 방문해 5만원 상당의 생활용품과 식품을 선택할 수 있다. 시는 나눔공간에 이어 위기가구에 추가 복지지원이 필요할 경우 읍면동 상담을 거쳐 정부의 긴급복지와 익산형 긴급지원사업과 연계해 지원하고 있다.

나눔공간은 시민과 단체, 기업 등으로부터 자발적인 물품과 후원금을 받아 채워지고 있어 더욱 의미가 크다.

이같은 취지 덕분에 전국 각지에서 기부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 시민들은 물론 타지역에서 소식을 듣고 시민까지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보태며 '익산발 나눔'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기부된 금액은 지난 13일 기준 253건, 4억3천8백만원 상당에 달한다.

익산시는 지난해부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민관협력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지원하기 위한 '익산형 긴급지원사업'을 확대해 실시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부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대상 기준을 전부 기준인 중위소득 75%에서 100%까지 대폭 확대해 보다 많은 위기가구를 지원하고 있다. 기준을 확대한 덕분에 약 4개월 동안 619명의 위기가정에 1억 8천만원의 긴급 생계비가 지원됐다.

특히 코로나19 영향으로 실직과 소득상실, 휴업과 폐업,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고 있던 다양한 시민들이 지원을 받게 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긴급 생계비는 29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어려움에 처한 대상자가 발생해 행정복지센터에 제보나 신고를 하면 담당 공무원이 해당 가정에 방문해 신속하게 조사와 지원을 진행한다.

1회에 한 해 1인당 40만원에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씩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나눔공간 운영자인 유화영 마켓장은 "위기가구의 호응에 이어 어려운 이웃과 나누고자 하는 기부 발길이

끊이지 않으면서 코로나19 시대 새로운 나눔문화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며 "나눔과 연대로 운영되는 나눔공간이 시민과 함께 나눔문화 1번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공공복지 시스템의 사각지대 발생으로 정부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익산형 긴급 생계지원으로 따뜻하고 촘촘한 지역사회 복지 안전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선수기자



아동 학대 등 사회적 이슈화에 대응 완주군, 올해 아동보호 사업 대폭 늘렸다

2021년 아동친화도시 정책소개 책자 제작 배포

아동 학대와 폭력 등이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한 가운데 완주군이 아동 보호를 위한 사업과 예산을 대폭 늘리는 등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완주군은 올해 추진하는 179개 아동과 청소년 관련 사업을 담은 '아동친화도시 정책소개 책자'를 14일 발간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 상 4대 아동권리별 사업과 예산을 분석·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모든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생존권과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등 '4대 아동 권리' 중 보호권 예산은 올해 총 85억5천700만 원으로, 작년보다 16억7천600만 원(24.5%) 증액했다. 관련 사업 역시 같은 기간 중 42개에서 52개로 23.8%나 늘어났다.

'아동 보호권'은 차별이나 학대와 방임, 폭력, 과도한 노동 등에서 차별받지 않고 해로운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뜻한다.

완주군은 아동 학대와 폭력, 차별 등이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고 있어 아동보호 업무 추진이나 아동청소년 안전 네트워크 휴센터 조성 등 신규 사업을 늘려 과제를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보호를 위한 예산은 2018년 52억8천100만 원에서 계속 증액해 올해 처음으로 80억 원을 넘어섰다.

반면에 코로나19 여파로 대면활동이 감소하면서 '아동 발달권' 예산과 사

업은 감소세를 보였다. 발달권 예산은 올해 412억7천900만 원으로, 작년보다 26%가량 줄어 들었다.

'발달권'은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놀고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등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권리를 뜻한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집합금지 등이 추진되며 대면사업이 줄어 사업과 예산 감소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이밖에 아이들이 안전한 주거지에서 기본적인 보건 서비스를 받는 등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는 권리를 뜻하는 '생존권'과,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으며 적극 참여하는 '참여권'과 관련한 예산과 사업은 소폭 감소세로 돌아섰다.

문명기 교육아동복지과장은 "아동친화도시에 거주하는 아동과 군민 누구나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이번 정책 책자를 발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관련 서비스를 차별 없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은 최근 지역의 250개 아동·청소년기관을 대상으로 정책 책자를 배포했으며, 온라인상에서도 정책 내용을 알기 쉽도록 아동친화도시 블로그에 소개했다.

김광수기자

전라북도, 생명을 지키는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

전라북도는 도심부, 어린이 보호구역, 주택가 등 도로의 차량 제한속도가 하향 조정될 예정이어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전라북도는 교통사고를 줄이고 보행자와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안전속도 5030'정책을 17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개정에 따라 도심부 일반도로(간선기능) 제한속도 50km/h, 어린이 보호구역, 주택가 주변 등 이면도로는 제한속도 30km/h로 지정하는 정책이다.

그간 전라북도는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14개 시·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기초조사, 시설 정비, 도민홍보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했다.

도내 14개 시·군 도심부(주거, 상업, 공업)에 5,498백만 원을 투입해

속도제한 표지판, 노면표지 등 시설 정비를 완료했고, 홍보활동에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전북도는 부산광역시와 실증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안전속도 5030'시행으로 인한 통행시간 지체는 크지 않고 교통사고 예방효과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부산광역시 중앙대로에서 실시한 실증 주행조사 결과, 도심부 도로는 교차로가 많아 평균 15km구간을 주행할 때 불과 2분 정도의 차이가 발생했다.

반면, 전체 사망사고는 6.6명에서 5명으로 24.2%, 보행 사망사고는 4.8명에서 3명으로 37.5% 감소했다. 특히 심야시간 교통사고는 39.8명에서 23명으로 42.2% 감소하는 등 각종 사고예방 효과는 두드러졌다.

전라북도 김형우 건설교통국장은 "안전속도 5030 시행 초기에는 도

민 불편이 예상되지만,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시행하는 교통안전 정책임을 감안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송일기자



제24회 남원시 전국 옷칠 목공예대전 수상작 최종 결정

남원시 주최, 남원목공예협회 주관으로 개최된 제24회 남원시 전국 옷칠 목공예 대전의 심사 결과, 대상으로 박만기 작가의 "3단 혼수함"이 최종 선정되었다.

지난 4월 2일부터 4일까지 접수 받은 작품을 대상으로 4월 7일에 진행된 심사는 옷칠, 같이,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6명의 전문 심사위원들이 진행하였으며, 공개 모집된 일반인단의 참관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가 이루어졌다. 이어 4월 12일까지 본선 작품 예정 공고를 통한 대국민 공개 절차를 통한 이의신청 절차 및 현장 심사 후 4월 14일 최종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상으로 선정된 박만기 작가의 "3단 혼수함"은 전통공예의 제작과정과 기법을 충실히 재현하였으며, 특히 주철에서 가장 어려운 색감의

반색이 동일하게 잘 표현되었고, 마감처리도 완벽에 가까웠다"는 극찬을 받았다. 또한 장식의 비례나 조금(彫金)의 정교함도 궁중의 품위를 엿볼 수 있게 잘 표현된 수작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옷칠목공예부문의 금상으로 선정된 조현영 작가의 "서안"은 수려이 오래된 느티나무 목목을 사용하였으며, 수차례 옷칠로 마감하여 화려하지 않으며 검소하고 단아한 서안의 특성을 잘 표현했다는 평을 받았다. 같이부분 금상에 선정된 이주섭 작가의 "달항아리 반상 기"는 여러 개의 목기가 층층이 쌓여 하나의 항아리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그 형태를 분리하여 하나 하나 그릇으로 사용하게 제작되어 실용성과 심미성을 잘 표현했다는 평을 받았다.

한장원 심사위원장은 목공예를 핵

심으로 한 유일한 공모전의 작품들의 수준이 뛰어나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장인 정신에 대한 일념으로 한국의 옷칠 목공예에 발전을 위하여 출품해준 작가들이야말로 진정한 공예인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상작품은 오는 5월부터 8월까지 남원, 서울, 전주 등에서 순회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수상작은 남원시 홈페이지 공모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남출기자



남원 농·축산물로 가장 맛있는 요리 만들기

2021 남원시 유튜브 영상 공모전

접수기간 : 2021. 8. 1(일) ~ 8. 9(월)

공모내용
남원 농·축산물을 재료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맛있게 먹는 영상

결과발표
2021. 8. 31. 시 홈페이지 공지 (예정)

작품심사
심사위원 10명 선정 후 국민심사 (유튜브 좋아요 득표수 평가)
최종선정 : 심사위원 점수 50% + 국민심사 점수 50%

출품작규격
아래 3가지 내용을 모두 포함해야 함.
① 영상 자막 또는 화면에 남원 농산물을 구입처 표기
② 요리 방법 소개
③ 맛있게 먹는 먹방
※ 출품작 규격 이외 영상 촬영 장소, 내용 구성, 화질 구성 등은 자유형식으로 하되 영상 길이는 최대 10분을 넘지 않도록 함

시상내역

구분	작품수	시상금	비고
대상	1	3,000천원	상금
최우수상	2	각 1,500천원	
우수상	2	각 1,000천원	
입선	5	각 300천원	

제출방법
참가신청서 1부, 활약서 1부, 출품작 1편 제출(hijins@korea.kr)

문의처
남원시청 홍보전산과 홍보계 ☎063-620-6044
※ 기타 세부사항 및 신청서류는 남원시청 홈페이지 참고

이거 보면
먹고 싶을걸~

“시민의 희망을 담아, 새로운 삶의 자리를 만들다” 민선7기 제8대 박상돈 천안시장, 취임1주년

“새로운 천안 실현을 위해 시민 행복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다”

“시민의 아픔과 불편함을 해결하고 오롯이 시민의 행복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달려왔다. 앞으로도 시민의 희망을 담아 코로나19로 무너진 경제 회복 및 고품격 문화도시를 조성하는 등 새로운 삶의 자리를 만들겠다.”

박상돈 천안시장이 16일자로 취임 1주년을 맞아 1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난 1년에 대한 소회와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시청 운영 방향에 대해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 1년 수많은 역경을 함께 이겨내며 막막한 길을 함께 걸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며, “도전의 연속이었지만, 시민 여러분께서 모아주신 힘과 지혜 덕분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위기를 함께 이겨내며 ‘새로운 천안’을 향한 미래의 주춧돌을 단단하게 쌓아 올렸으며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전력 질주한 결과 미래를 빛낼 성장 동력을 대거 확보할 수 있었고 역대 최대 규모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경제 위기 극복과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 스마트 대중교통 혁신,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예산 절감, 일봉산 민간개발특례사업 주민투표, 선제적 코로나19 대응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지난 1년간 민선7기 제8대 시정은 빙그레 등 281개 기업으로부터 1조

622억 원 규모의 역대 가장 많은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 회복의 기반을 닦았다. 또 2024년까지 전국에서 제일 많은 10개 산업단지를 동시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2만 4,000여 개의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중기부 공모 사업에 선정된 천안 그린스타트업 타운은 500개의 스타트업 유치와 1만 5,0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천안의 원도심을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혁신기술창업 메카로 조성하게 된다.

지난해 7월 지정된 강소 연구개발 특구는 천안이 미래 자동차 부품산업의 연구개발 및 생산 혁신 거점으로 거듭나도록 기반을 마련했으며,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된 천안사랑카드를 2,553억 원 발행해 침체된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이끌어 오고 있다.

스마트 대중교통 혁신을 위해서는 시내버스 책임노선제를 52개 노선과 95대 버스로 확대 운영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민원을 59%나 감소시켰다.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는 불공평했던 당초 협상에 대해 적극적인 재협의를 펼쳐 59억 원의 시 예산을 절감했으며, 갈등이 있었던 일봉산 민간개발특례사업에 대해서는 전국 최초로 시민들이 직접 결정하는 주민투표를 실시해 주민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작년부터 현재까지 31회에 걸친

SNS라이브 방송 ‘시민박담-돈위리’를 운영해 쌍방향 소통을 도모하고 ‘열린시장실’로 집무실을 활짝 열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민들을 만나 민원이나 불편사항을 직접 들었다.

코로나19 청정 도시 천안을 만들기 위해 충남 최초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 운영해 진단검사 확대를 통한 숨은 확진자 조기 발견으로 지역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했다. 작년 12월 24일부터 현재까지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해 누적 인원 30만 명이 넘게 검사를 받았고 감염 확산이 조기 진화되면서 최근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앞으로도 ‘새로운 천안 행복한 시민’ 비전과 목표를 완성하기 위해 올해 8대 분야별 전략과제를 수립하고 역점 사업을 지속해서 힘차게 추진한다. 지난 1년간은 밀집도를 고려한 시간이었다면 그동안의 성과를 발판삼아 앞으로 색을 입혀나간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로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희망 경제’를 위해 10개 산업단지 외에 5개 신규 산업단지를 추가로 조성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인프라를 확충하고 우수 기업 유치를 위해 총력을 다한다.

원도심 일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오피스텔·도시재생리츠사업 포함 9개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울드타운’을 재현해 추억의 역사거리를 재현한다.

천안다움이 있어 매력적인 ‘고품격 문화도시’ 천안을 위해서는 천안

이 가진 무궁무진한 문화적 가치를 발굴하고 문화적 자산으로 승화시킬 예정이다.

독립기념관을 중심으로 K-아트 지역박람회를 개최해 K-문화의 미래와 과거가 공존하는 천안만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천안스타트업축제는 고유 가치를 지켜 세계적인 문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간다.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스마트 교통도시’ 실현을 위해서는 천안의 대중교통 체계를 완전히 바꾼다.

수도권 전철과 시내버스 환승 체계를 도입해 수도권 수준의 교통 편리성을 제공하고 시내버스 도심 순환버스와 심야버스를 도입해 수요자 중심 대중교통을 실현은 물론 시내버스 디자인 변경과 친절 서비스 향상 도모로 천안을 완전히 새로운 스마트 교통도시로 환골탈태한다.

또 2028년까지 천안형 외곽순환도로 9개 구간 구축과 도시개발계획에 따른 시내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운동장 사거리 지하차도를 비롯해 2027년까지 총 3,500억 원 규모의 4개 도로를 추가 개설해 천안의 내·외곽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교통 인프라를 완성할 방침이다.

박상돈 시장은 “시민의 행복이 그 무엇보다 소중한 시대의 시금석이 다가가고자 끊임없이 노력했다”며, “시민의 삶의 온도를 높이는 믿음을 만드는 행정을 펼쳐 ‘우리는 할 수 있다’는 힘을 불어넣고 뒷받침하겠다. 천안시 공직자와 새로운 천안 실현을 위해 시민 행복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천안시, 지역 중소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교육생 모집

스마트공장 IoT 설비연동 전장설계 및 제어과정 운영

천안시가 지역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으로 지역 내 기업이 원하는 지역 인재를 육성해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칭 해결에 나선다.

천안시와 한국기계산업진흥회 기술교육원은 지역 중소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과정에 참여할 교육생 모집으로 ‘스마트공장 IoT 설비연동 전장설계 및 제어과정’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 3월 천안시, 한국기계산업진흥회 기술교육원과 ㈜패커드코리아 등 11개 채용약정 기업과의 협약을 체결하며 이뤄졌다.

협약에 따라 한국기계산업진흥회는 6월 24일부터 9월 9일까지 교육을 운영하고 채용약정 기업 등 지역 우수 중소기업에 취업시킬 계획이다. 교육대상은 천안시에 거주하는 만 34세 이하로 고졸, 대졸 미취업자 또는 천안시 소재의 고등학교나 대학교 졸업예정자이다.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6월 18일까지 한국기계산업진흥회 기술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응시원서를 내려받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기계산업진흥회 기술교육원으로 문의할 수 있다.

이제순 기업지원과장은 “산업전문 인력양성 사업 등을 통해 기업에는 인력을 지원하고 청년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라며, “다양한 시

책으로 관내 기업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스마트공장 IoT 설비연동 전장설계 및 제어과정 교육생모집

교육기간: 2021. 6. 18 (수) ~ 9. 9 (수) / 장소: 천안시 소재의 고등학교나 대학교 졸업예정자

교육대상: 천안시에 거주하는 만 34세 이하로 고졸, 대졸 미취업자 또는 천안시 소재의 고등학교나 대학교 졸업예정자

교육내용: 스마트공장 IoT 설비연동 전장설계 및 제어과정 운영

문의처: 한국기계산업진흥회 기술교육원 (041-589-4456)

원주시·한국장애인고용공단(주)복지TV강원방송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 체결

원주시 3억 상당 토지·(주)복지TV강원방송 7억 출자, (주)행복드림(가칭) 설립

강원도 최초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협약식이 오늘(14일) 오전 원주시청에서 열렸다.

협약식에는 원장목 원주시장과 조향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주)복지TV강원방송 이창혁 대표이사, (주)행복드림(가칭) 대표이사 등이 참석해 원주시의 장애인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의 공동투자를 통해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터를 만드는 개념으로 장애인 고용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를 의미하고 있다.

원주시는 설립 타당성 검토, 조례 제정 및 출자 등의 과정을 거쳐 상반기에 법인 설립을 완료하고 공단에서 지원금을 받아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투자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원주시가 3억 원 상당의 토지를, (주)복지TV강원방송



이 7억 원을 출자해 (주)행복드림(가칭)을 설립하고, IT분야(웹 접근성, 홈페이지 제작, 교육 사업 등), 장애인 복합여행 분야, 폴센터 등에서 60여 명의 지역 중증장애인을 채용할 예정이다.

원장목 원주시장은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을 시작으로 원주시의 장애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에 적극 매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장애인에게 최상의 복지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원주시가 앞장서겠다.”라고 약속했다.

한편, 복지TV강원방송 이창혁 대표이사는 “강원도 최초의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성공적으로 설립해 IT분야 등 혁신적인 장애인 일자리 창출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세종소방본부, 음식점 주방에 K급 소화기 설치하세요

식용유 화재 시 기름 위막 형성 재발화 차단, 화재 대응 효과적

세종소방본부(본부장 강대훈)가 음식점 주방에서 식용유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K급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8~2020년) 관내 주방화재는 54건으로 이중 식용유로 인해 발생한 화재는 4건(7.4%)으로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식용유로 인한 주방화재는 불이 붙는 온도보다 끓는점이 낮아 재발화할 우려가 높다.

급한 마음에 물을 뿌릴 경우 주변으로 기름이 튀어 불길의 더욱 커질 수 있다.

주방을 의미하는 ‘키친(Kitchen)’에서 앞 글자를 따온 K급 소화기는 식용유 등에 의한 화재 시 기름 위막을 형성해 식용유 온도를 낮추고

산소 공급을 차단해 주방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2017년 6월 화재안전기준이 개정되면서 K급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장소)은 음식점·다중이용업소·호텔·기숙사·노유자시설·의료시설·업무시설·공장·장례식장·교육연구시설·교정 및 군사 시설의 주방이다.

다만, 화재안전기준 개정 전 대상은 의무 설치대상이 포함되지 않아 업주의 자발적인 설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관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 음식점 619곳 중 90%수준인 557곳은 K급소화기를 설치했으며, 소방본부는 이의 미설치 대상 음식점에 대해 설치를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김영근 대응예방과장은 “주상복합건축물의 음식점, 다중이용시설의 긴급 점검을 통해 K급 소화기의 설

치 여부와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K급 소화기를 설치하지 않은 음식점 등 업주분들은 설치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최재은/기자

소화기의 종류 K급 소화기

→ K화재에 적임!
 동식물유(식용유 등)로 인해 발생하는 화재 발생 시 위막을 형성시켜 식용유 온도 낮추고 산소 공급을 차단해주는 소화기로 음식점이나 주방 화재 진화에 적합한 소화기

태안군, ‘시대의 감성, 젊음의 활력, 세대간 공감’의 만리포 해수욕장 만든다!

태안군이 만리포 해수욕장을 타 지역과 차별화된 특색 있는 해수욕장으로 만들기 위해 수립한 특화개발전략의 밑그림이 나왔다.

군은 지난 14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가세로 태안군수, 군 관계자, 자문단, 용역사 등이 모인 가운데 ‘만리포 특화개발전략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그동안 군은 만리포 해수욕장의 과거 명성을 회복하기 위해 지역 고유성이 담긴 차별화 전략 및 관광콘텐츠 개발, 주민의 역량 강화 및 주민참여형 계획, 현실적인 사업화 방안 및 재원조달 방안 마련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을 진행해왔다.

그 결과 이날 보고회에서 군은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만들어가는 젊은 만리포 바다 마을’이라는 비전과 ‘청춘을 품은 바다, 만리포’라는 콘셉트를 밝혔다.

이와 함께, ‘관광인프라 및 콘텐츠 확충으로 밀레니얼 세대(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 사이에 출생한

세대)불러들이기’, ‘주변 및 인접지역과 상생으로 더 큰 상품 만들기’, ‘주민주도의 사업으로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하기’, ‘수용태세 개선 및 서비스 혁신으로 다시 오고 싶게 만들기’, ‘지역자산을 활용한 홍보로 인지도 높이기’를 5대 목표로 삼고 △핵심자산으로 특화 콘텐츠 개발 △잠재력 있는 뉴스타 발굴 △주민이 만드는 관광사업구도 마련 △만족스러운 숙박, 교통, 안내, 먹거리 실현 △편을 만드는 홍보활동 전개라는 5대 전략을 마련 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군은 ‘서핑 특화 사업’, ‘사계절 비치 특화사업’, ‘생태적 가치 실현 사업’, ‘정원 특화 사업’, ‘주변 연계 콘텐츠 강화’, ‘잠재자원 예술성 확보’, ‘지역민 참여도 마련’, ‘만족도 개선사업’, ‘홍보마케팅 사업’ 등 9개 분야 총 40개 사업을 발굴했다.

그 중 △선셋 클린 캠핑 캠페인 △만리포니아 서핑 교육프로그램 상품화 △극제서핑대파 연계사업 △만리

포니아 비치 콘텐츠 상품화 △만리포 웰컴 시티 조성사업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이번 만리포 특화개발전략 마련을 통해 ‘만리포에서 머무르며 발견하는 행복한 젊음의 바다 마을 만리포’, ‘부모님의 청춘과 나의 청춘을 품은 만리포’를 비전으로 특색 있는 해수욕장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남은 용역 기간 내 에 바다의 수면을 이용한 콘텐츠 발굴을 보완해 ‘국가대표 해수욕장’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재은/기자



횡성군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잔류농약 분석능력 2년 연속 우수성 인정받아

횡성군은 횡성군농업기술센터 농산물안전성분석실이 금년도 2월 영국 환경식품농림부에서 주관하는 국제 분석숙련도 평가(FAPAS: Food Analysis Performance Assessment Scheme) 잔류농약 분야에 참가하여 지난해에 이어 모든 평가항목에서 분석능력의 우수성을 강원도 내에서 유일하게 2년 연속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국제 분석숙련도 평가(FAPAS)는 잔류농약, 중금속, 식품첨가물 분야의 분석능력을 평가하는 국제인증 숙련도 프로그램으로 매년 전 세계 정부기관 및 공인시험기관이 참여하여 분석능력을 검증하며, 제출한 분석성적의 ‘z-score’값이

0.0% 이내 범위면 분석능력을 신뢰할 수 있는 결과로 평가하여 분석기관의 분석능력 및 숙련도를 검증받는다.(z-score: 참여한 모든 실험실 간의 오차범위) 금년 횡성군의 결과는 z-score 값 0.0 ~ 0.8%로 분석능력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농산물안전성분석실은 2019년도 횡성군 토양 및 농산물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GAP·친환경 인증 및 PLS 대비 농산물 잔류농약 320성분 분석을 지원해 왔으며, 2020년에는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1,500건을 분석 지원하였다. 금년에는 로컬푸드, 학교급식, 친환경농업, PLS 대비 농산물 등

2,000건 정도의 분석의뢰가 예상된다. 또한 금년 7월 1일부터 관련 법령 개정으로 잔류농약 분석항목이 320성분에서 511성분으로 확대되는 것에 발맞추어 분석 전담인력 증원 및 분석장비, 환경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장신상 군수는 “횡성군은 앞으로도 농산물의 품질 경쟁력 향상과 신뢰도 구축을 위해 매년 국제 분석능력 평가에 참가하여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능력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관내 농업인의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력 향상 및 소득증대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동희기자

의정부시 송산1동, 우리동네 천사통장 활동 우수자 표창

의정부시 송산1동은 4월 13일 동장실에서 '2020년 우리동네 천사통장' 활동 우수자를 표창했다고 밝혔다.

'2020년 우리동네 천사통장' 활동 우수자는 총 3명이 선발되었으며,洞 복지행정분야에 전용부 제13동장, 복지사각지대 발굴 분야에 유영준 제32동장, 자원발굴 분야에 김영근 제48동장이 영예로운 수상자가 되었다.

'우리동네 천사통장'은 위기가구 발견 시 신고 의무가 있는 통장을 복지통장으로 별도 임명하여 그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마을 실정에 밝은 통장이 복지사각지대 발굴업무에 적극 협력하여 이웃이 이웃을 돕는 체계를 구축하고 洞 인적안전망 강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고위험군 안부 확인 및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신고하기, 거동 불편한 취약계층에 후원물품 전달하기, 후원자 및 자원 발굴하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급여) 및 국가유공자 세대내 종량제봉투 전달하기 등이 있다.

이날 수상한 전용부 제13동장은 "다른 통장님들과 같은 일을 한 것인데 이렇게 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며, 앞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송산1동 주민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수 송산1동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천사통장들이 주민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으로써 누수 없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응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영기기자

안성시, '우리 명산 숲길지킴이 발대식' 개최

안성시는 14일, 김보라 안성시장 및 우리 명산 숲길지킴이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명산 숲길지킴이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지역 내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민간 산악회와 주요 등산로를 1:1 매칭하여 건전한 산행문화 홍보, 시설물 안전 모니터링, 산림정화 활동 등을 함께하는 내용으로 '우리 명산 숲길지킴이'를 운영하면서 13개 참여단체를 우리 명산 숲길지킴이로 위촉했다.

참여 단체는 산을 사랑하는 총 13개 동호인 단체로 10개면에서 각각 활동하는 산악회로 구성하였으며,

각 단체별로 주요 등산로를 지정 받아 이달부터 내년 12월까지 우리 명산 숲길지킴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등산로 정비도 중요하지만 수시로 관리가 필요한데, 공공부문의 역할과 함께 실제로 숲길을 이용하는 동호인 단체가 관리의 주체로 참여해준다면 더욱 효과적인 것"이라며, "여러분의 자율적인 우리 명산 숲길지킴이 참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끼없는 관심과 활동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근수기자



대한노인회 안동시지회, 장학금 기탁

(사)대한노인회 안동시지회는 지난 4월 9일 안동시장을 방문해 지역 인재 양성에 써달라며 3백5십만 원을 기탁했다.

(사)대한노인회 안동시지회는 36,800여 명의 노인들이 소속된 대표단체로서 따뜻한 지역 사회 만들기 앞장서고 2010년부터 올해까지 10회에 걸쳐 총 3천3백만 원의 장학기금을 기탁했다.

김동량 (사)대한노인회 안동시지회장은 "미래 안동 발전의 동량이 될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학생들을 위한 따뜻한 나눔이 우수한 인재 양성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장학사업에 더욱 열중하겠다"라고 전했다.

김세기기자



광주광역시동구, '스마트 그린도시조성 자문위원' 위촉장 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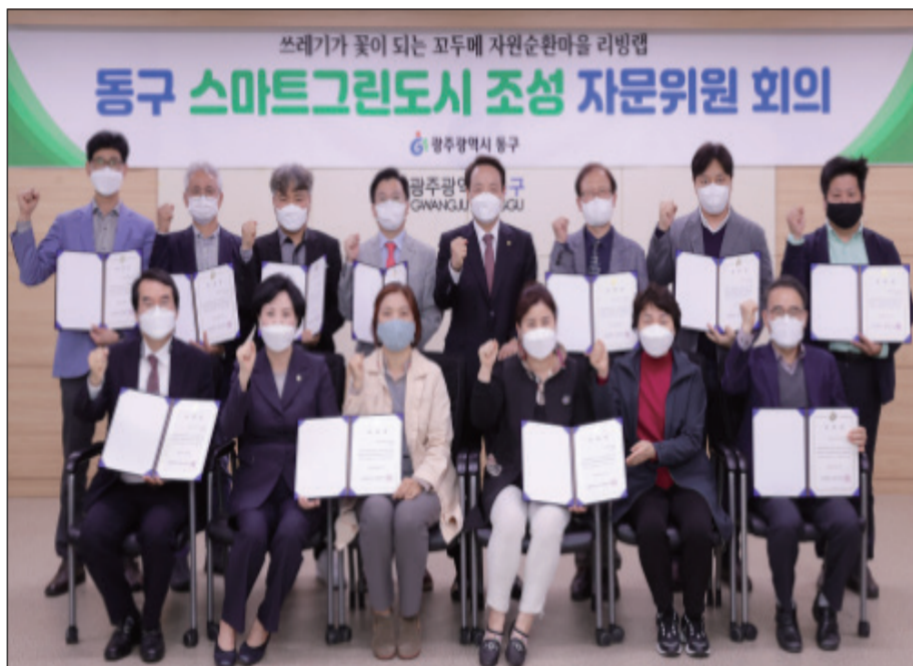
기후·환경 분야 등 전문가 15명... '리빙랩' 사업 박차

광주 동구는 환경부 공모에 선정된 100억 원 규모의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을 위한 '쓰레기가 꽃이 되는 꼬(꽃)두메 자원순환마을 리빙랩'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 13일 자문위원회를 위촉하고 1차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문위원회는 기후·환경,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 조경, 건축, 인공지능 컴퓨터, 도시재생·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조직, 주민자치 등 각 분야별로 활동 중인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에는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미경씨가 선임됐다.

자문위원회는 앞으로 동구에서 추진 중인 탄소중립 그린뉴딜사업 실현을 위해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등 사업전반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굴·제안하고 2022년 사업완료시까지 기후위기대응 추진전략을 자문하게 된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자문위원들이 지역사회에 적합한 목표설정, 환경비전 및 발전방향 등을 적극 제시해주길 바란다"면서 "앞으로 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사



업에 적극 반영해 광주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형 녹색뉴딜을 선도하는 선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생활 쓰레기, 기후·환경·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마을커뮤니티 등

주민참여를 통한 자원순환사회 전환과 그 속에서 새로운 그린일자리를 창출해내기 위해 2022년까지 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해 산수동 일대에 ▲쓰레기제로마을 만들기 ▲도시기후 탄력성 강화 ▲자원순환 교육실전 플랫폼 조성 등을 추진한다.

김덕윤기자

거창소방서, 남성·여성의용소방대 연합회장 이취임식

거창소방서(서장 서석기)는 제10대 남성의용소방대 연합회장 및 제6대 여성의용소방대 연합회장 합동이·취임식을 서장실에서 개최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1.5단계)로 서석기 소방서장을 포함해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체온 측정,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했다.

이날 거창소방서는 그동안 의용소방대의 운영 활성화와 지역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헌신한 전임 정철규 남성연합회장과 전숙향 여성연합회장의 노고를 치하하고, 이어 취임하는 마호운 남성연합회장과 김은하 여성연합회장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신임 김도근 위 천면 남성의용소방대장에게는 도지사 임명장을 전수했다.

새로 취임한 마호운 남성연합회장과 김은하 여성연합회장은 각각 2015년과 2012년에 의소대원으로 임명 후 적극적으로 소방업무를 수행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각종 재난현장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봉사자로서



거창군 의용소방대연합회가 전국 최고의 연합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서석기 서장은 "이임 연합회장에게는 현장에서 물러나지만 가슴 속에는 늘 의용공공정신을 새기면서 소방의 조력자로 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으며, 신임 연합회장에게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헌신과 봉사하는 지역의 안전과수꾼 역할을 기대한다.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거창군 만들기에 힘써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광용기자

북구 시설관리공단, 주민감사관 위촉장 수여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성)은 14일 공단 이사장실에서 제1기 주민감사관으로 선정된 2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주민감사관은 주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를 구현하기 위하여 향후 공단 자체 감사에 참여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고객불편 사항에 대한 개선 건의와 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활동하게 된다. 임기는 1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김정성 이사장은 "앞으로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열린 경영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기현기자



AI Artificial Intelligence

교육도시

오산

서울문화재단,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 '융합예술 분야 예술가·기획자 양성'

서울문화재단이 올 한 해 AR·VR·XR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기반으로 한 '융합예술' 분야를 선도할 전문 기획자 양성, 예술가들의 창작활동 지원에 나선다.

지난 10년 간 기술 기반 문화예술 창작·제작 활동을 지원하며 축적한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대상과 프로그램 종류를 대폭 확대한다. 연말까지 기획자, 예술가, 테크니션, 청소년 등 대상별로 총 4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서울문화재단은 2019년부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일반시민들에게 융합예술과 관련된 지식, 정보, 담론을 제공하는 '융합예술 아카데미'를 총 11회 진행했다. 또, 중앙대·연세대와 공동 기획한 '융합예술 전문가 양성과정'을 통해 35명의 전문가를 배출했다.

2020년에는 전문가·일반인 두 트랙으로 '미래예술 창작지원'을 추진했다.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일반과정'에는 총 13,967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100시간 20강좌를 이수하는 '전문가과정'은 18명이 완료했다.

융합형 공연·전시 분야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70명의 기획자를 양성하고, AR·VR·XR 분야에서 창작활동을 하는 청년예술가를 선정해 최대 5천만 원 상당의 교육 및 쇼케이스를 지원한다. 학교나 키움센터 등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예술교육가(TA)에겐 비대면·온라인 콘텐츠 제작과 관련 기술교육을 시작한다. 청소년들이 기술 기반 예술활동을 경험해볼 수 있는 워크숍도 진행한다.

서울문화재단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1년 융합형 창·제작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4개 대상별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첨단기술이 기존 문화예술을 대체하는 수단이 아닌, 창작활동의 지속가능성과 새로운 가능성을 이끄는 촉매제로서 공존할 수 있도록 예술의 창의성과 기술적 전문성의 간극을 줄인다는 목표다.

4개 대상별 프로그램은 ①융합형 문화기획자 : 단계별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②청년예술가 : VR, AR, XR 등을 활용한 창·제작 활동과 작업 완성도를 올리는 맞춤형 지원 ③예술교육가 : 비대면 온라인 프로그램 개발 교육 ④청소년 : 예술가와 함께 AR, VR 등 다양한 미디어를 경험하는 창작워크숍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 예술가들과 함께 기술발전을 통해 새로운 창작 가능성을 찾아보는 '라운드테이블'도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문화재단은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창·제작 활동을 하는 융합예술 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위해 '융합형 문화기획자 펠로우십 프로젝트: 언폴드 엑스-에프더블유(Unfold X-FW)'를 추진한다.

'언폴드 엑스(Unfold X)'는 지난 2010년부터 국내 미디어아트 예술가를 발굴하고 동시대 국제 동향을 소개해온 미디어아트 축제인 '다빈치 크리에이티브'를 개편한 서울문화재단의 융합예술 플랫폼이다.

'언폴드 엑스-에프더블유(Unfold X-FW)'는 'Unfold X-Fellowship & Wide'의 줄임말로, "수평적 관계에서 공동 연구를 한다"는 뜻을 담았다.

이 프로젝트는 기존에 창작자 중심의 지원 프로그램을 기획자 중심으로 옮긴 '기획 전문가 양성과정'이다. 급변하는 환경에서 다양한 창·제작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 예술인, 기획자, 예술가, 테크니션 등의 융합예술 전문가들이 대상이다.

교육 과정은 ▲예비 기획자를 대상으로 하는 입문과정(50명) ▲전문가를 위한 심화과정(20명)으로 구분된다. 이들에게는 1,000만 원의 지원금뿐 아니라 융합예술 전문가의 강연, 이론부터 실제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다.

가상현실(VR)·증강현실(AR)·확장현실(XR) 등 새로운 기술에 기반한 청년 예술인과 기획자를 위한 '언폴드 엑스 사피(Unfold X SAPY)'는 4월 27일부터 진행한다.

'사피(SAPY)'는 청년예술인의 지속가능한 창작활동을 위한 서울문화재단의 공간인 '청년예술청'(Seoul Artists' Platform_New&Young)을 뜻하는 영문명이자 '사물을 지혜롭게 잘 이해하는 사람'을 뜻하는 라틴어 사피엔스(Sapiens)에서 유래했다.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청년 예술인 공간에

서 예술과 기술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예술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을 의미한다.

'언폴드 엑스 사피'는 '기본과정(AR-SAPY)'과 '집중과정(XR-SAPY)'으로 구분된다.

기본과정인 'AR-SAPY'는 증강현실(AR) 분야에 관심 있는 기획자와 창작자가 대상이다. 크리에이터 6인을 통해 자신만의 콘텐츠를 쉽고 재미있게 제작할 수 있도록 웨비나(웹에서 진행하는 세미나) 형식으로 총 2회 제공한다.

수업은 회당 3시간씩 진행하며 'Spark AR 소개 및 효과 만들기(4월 27일)', '코딩 없이 콘텐츠 제작하기(6월 4일)'에 대해 다룬다.

집중과정인 'XR-SAPY'는 확장현실(XR) 분야에서 창·제작 활동을 하는 청년예술가가 대상이다. 창·제작 활동과 작업의 완성도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선정된 팀(개인 포함)에 총 5천만 원 상당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최적의 상황에서 작품이 구현될 수 있도록 팀별로 각 기획안에 맞는 기술자, 문화예술 전문가, 컨설턴트, 다양한 멘토 등을 매칭해주고 ▲단순 기술 교육에서 벗어난 컨설팅과 멘토링 ▲최신 IT기술 분야와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트레이닝 및 세미나(20여 회) ▲결과가 실현될 수 있는 쇼케이스 작품 제작비 등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프로그램을 개발·실행하는 예술교육 현장의 수요에 따라 예술교육가(TA)를 위한 '교육매개자 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기술교육'을 오는 7월부터 운영한다.

예술교육가(TA)는 학교예술교육 TA(84명)와 지역예술교육 TA(24명) 등 총 108명이 대상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예술교육을 둘러싼 기술환경의 변화 ▲비대면 온라인 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기획과 제작 ▲온라인 예술교육 관련 저작권 교육 ▲실시간 쌍방향 예술교육에 활용 가능한 툴 등을 소개한다.

올해부터는 기존에 학교에서 활동하던 TA를 지역으로 확대해 일선에서 예술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최신 IT기술과 문화예술 분야를 접목한 교수법을 통해 학교와 생활 속 거점공간에서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육콘텐츠가 확산되는 것이 목적이다.

글, 그림, 책, 신문, 사진 작업 등 전통적 미디어부터 영상, AR, VR, 모바일 작업 등 뉴미디어에 이르기까지 청소년을 위한 '미디어&도구 워크숍'이 오는 5월 29일까지 서울예술교육센터에서 계속된다.

14~19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 워크숍은 미디어의 본질인 '메시지 전달과 자기표현'에 집중할 수 있는 예술교육 워크숍을 통해 VR, AR을 체험해보고 예술가와 함께 다양한 미디어(매체)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세부 프로그램은 ▲VR 드로잉과 포토스캐닝을 활용한 '2001/2023: 스페이스 오딧세이' ▲나만의 잡지를 만드는 '진(Zine)메이킹 워크숍' ▲도구 창작워크숍인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도구' 등이다.

기술발전과 장애의 관계를 되돌아보는 라운드테이블 '장애예술과 융복합: 기술과 장애와의 불편한 동행'을 오는 5월 7일 오후 2시에 서울예술교육센터(용산구 서빙고로 17)에서 개최한다.

총 2개의 세션으로 진행되는 이 행사는 「사이보그가 되다」의 저자인 김원영 변호사와 김초엽 소설가가 참여해 기술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장애인과 기술 발전의 관계를 성찰한다. 이밖에도 각종 미디어에서 정상과 비정상의 이분법적 시각에 질문을 던지고, 기술을 통한 새로운 창작의 가능성에 대해 공유할 예정이다.

김중휘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코로나19가 길어짐에 따라 변화하는 문화예술 환경에 발맞춰 예술과 기술의 융합이 중요한 시기"라며, "우리 재단에서 준비한 '융합형 창·제작 사업'이 새로운 문화예술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광수기자

국가등록문화재 도입 20주년 기념 '등록문화재, 광화문에서 보다' 개최

문화재청·대한민국역사박물관 공동개최

문화재청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국가등록문화재 제도 도입 20주년 기념 특별전 '등록문화재, 광화문에서 보다'를 4월 15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6일부터 7월 18일까지 개최한다.

국가등록문화재는 급성장하는 사회 변화 속에서 근현대문화유산의 멸실, 훼손을 방지하고자 2001년 도입된 제도로, 그간의 경직된 원형보존 방식에서 벗어나 문화재의 보존과 동시에 활용에 초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2021년 4월 5일 기준 총 901건(건축물·시설 등 부동산 586건, 동산 315건)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번 전시에서는 근현대의 격랑 속에서 전통과 근대를 주체적으로 융합하고자 했던 노력의 흔적인 국가등록문화재 46건 80점을 실물원본과 영상물 등으로 선보인다.

특히, 일제강점기 한글을 지키고 다듬은 밑거름인 조선말 큰사전 원고(2012년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2020년 일부 보물 지정)를 비롯해, 한글점자 훈맹정음 제작 및 보급 유물, 독립신문 상해판, 이육사 친필 원고 '편복', 조선요리제법, 순기정의 제11회 베를린올림픽 마라톤 우승 유물, 양단 아리랑 드레스 등의 문화유산을 실물로 직접 볼 수 있다.

또한, 부산 임시수도 정부청사, 인천 선린동 공화춘 등의 건축물은 일체 영상 다큐멘터리 형태로 전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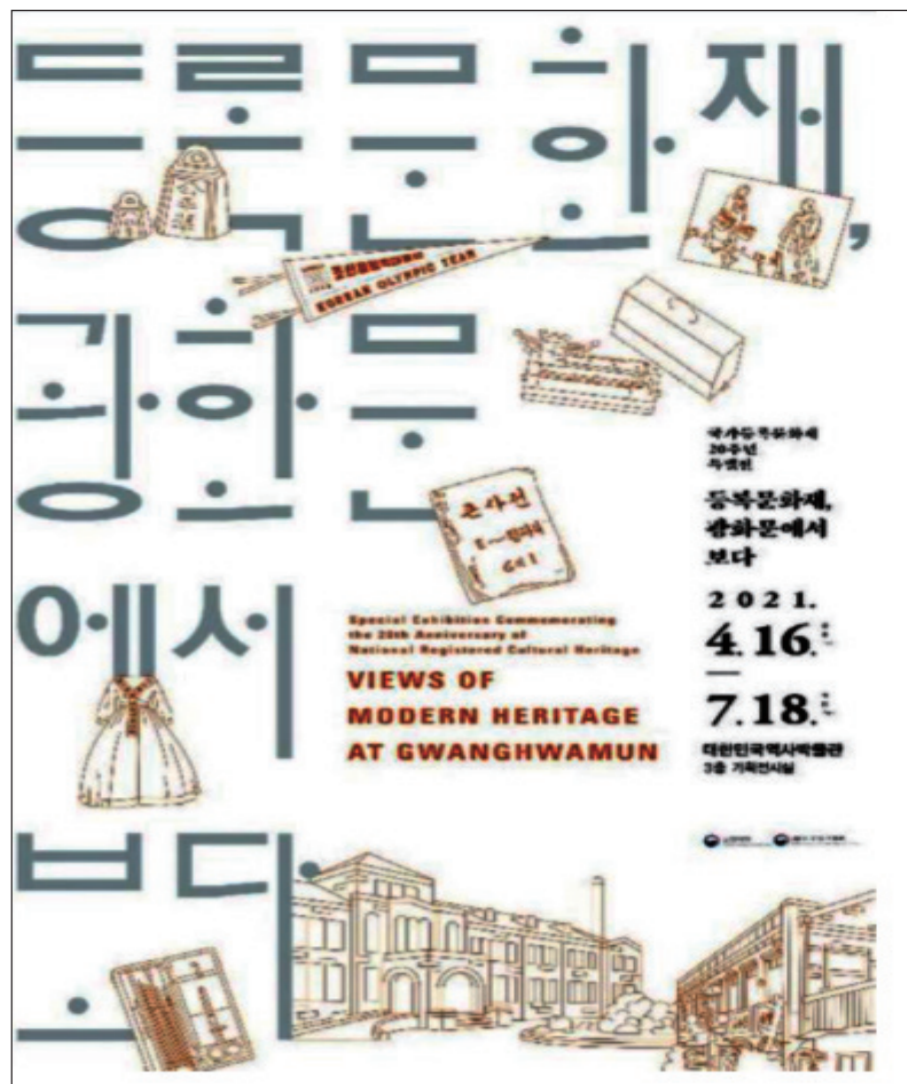
전시는 도입부에서 전체 국가등록문화재를 영상으로 선보이며, 총 4

부로 구성된다. ▲1부'삶의 체계, 생활을 바꾸다'에서는 근대문물을 수용하면서 도량형, 의학, 그림, 요리법 등 전통시대의 삶을 새롭게 전승한 흔적을 조망하였다. ▲2부'말을 모아 뜻을 통하다'에서는 일제 강점기 한글을 새로운 나랏말로 삼고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하려했던 노력과 사회적 약자였던 시각장애인을 위한 한글점자 창제 노력을 볼 수 있다.

▲3부'세우고 짓다'에서는 일제 영상다큐멘터리를 통해 등록된 건축물을 관람할 수 있다. ▲4부'해방, 새로운 문화를 펼치다'에서는 해방 이후 의복문화, 체육, 영화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문화를 펼치려한 흔적이 전시되어 있다. 전시 마무리 순서로는 국가등록문화재 제도에 대한 설명과 등록현황, 등록 신청절차를 소개하였다.

전시회와 더불어 오는 5월 13일에는 문화재청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학술대회 '문화재로 근현대를 보다'에서는 전문가 발표를 통해 제도 도입 20년의 성과를 공유하고, 국가등록문화재 등록의 의미를 논의함으로써 등록문화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전시를 통해 격동의 시기와 변화를 거쳐 전통과 현대의 접목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창조했던 우리 선조들의 열정과 그 결실인 근현대 문화유산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특별전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3층 기획전시실)에서 7월 18일까지 진행되며,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전시 관람은 마스크 착용, 안전거리 유지, 발열 확인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한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전시장을 찾지 못하는 사

람들을 위해 문화재청과 대한민국의사박물관에서는 다음갤러리, 유튜브 브 영상, 가상현실(VR) 영상 등 다양한 온라인 전시를 준비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전순희기자

금천구, 음악으로 전하는 위로와 공감의 시간

4월 21일, 22일 이틀간 금천구청 지하1층 썬큰광장에서 진행

금천문화재단이 4월 21일과 22일 정오 금천구청 지하 1층 썬큰광장에서 '다시, 봄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다시, 봄 페스티벌'은 '봄날의 희망'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뮤직 페스티벌이다. 금천문화재단이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구민들과 금천구청 및 보건소 직원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했다.

첫째 날인 21일에는 금천구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금천교향악단의 무대로 꾸며진다. 앤니오 모리코네의 '가브리엘 오보에', 뮤지컬 OST 'I could have danced all night', 빌더글라스의 'Hymn' 등 한국인에게 친숙한 곡들을 뮤지컬 배우의 친절한 해설과 함께 현악 5중주와 금관 5중주, 뮤지컬 넘버로 선보인다.

이튿날인 22일에는 국내 하나뿐인

국악아카펠라그룹 '토리스'의 무대가 마련된다.

'사랑가', 민요 '창부타령' 등 우리에게 익숙한 판소리 곡과, 중독성 있는 멜로디로 국악계 3대 수능금지곡으로 불리는 '어우와방아요' 곡을 토리스만의 국악 아카펠라로 새롭게 선보인다.

한편, 재단은 페스티벌 기간 동안 썬큰광장에서 꽃 장식물로 꾸민 포토존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이용진 금천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페스티벌은 음악이 주는 깊은 공감과 에너지를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일상을 위로하고 치유되는 시간이 될 것이다"며, "점심시간을 활용해 클래식과 국악의 각기 다른 매력을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미성기자

2021. 4. 21(Wed) - 4. 22(Thu) 금천구청 B1 썬큰광장

4. 21(Wed) 12:00 - 13:00 "봄날의 클래식 & 뮤지컬" 금천교향악단

4. 22(Thu) 12:00 - 13:00 "조선의 힙, K 팝의 향연" 국악아카펠라 토리스

금천문화재단은 금천구민의 건강한 일상의 회복을 응원합니다

주최·주관: 문화재단, 후원: 금천구청, 공연문의: 금천문화재단 예술진흥팀 02-2627-2999

서산 박첨지놀이, 시민이 대표 문화·관광 콘텐츠로 만든다!

2021년 국민정책디자인 지원과제 공모 선정



충남 서산시 대표 문화재이자 충남 무형문화재 제26호인 '서산 박첨지놀이'가 시민 손으로 새로워진다. 서산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1 국민정책디자인 지원과제'에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국민정책디자인은 정책의 수요자인 국민과 공급자인 공무원이 서비스 디자이너와 함께 공공서비스를 개발하는 국민 참여형 정책 모델이다.

행안부는 올해 중앙행정기관과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서면심사와 컨설팅, 발표심사를 거쳐 총 23개의 지원과제를 선정했다. 국민정책디자인의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90년을 이어 온 마을 문화공동체, 지속가능한 미래의 길 찾기' 과제를 응모해 선정됐다. 공모 선정으로 행안부로부터 정책 설계 전문가인 서비스 디자이너를

지원받게 됐다. 시는 4월 중 시민, 전문가, 공무원으로 국민정책디자인단을 구성하고 '서산 박첨지놀이'를 지역 대표 문화·관광 콘텐츠로 발전시킬 정책을 개발하게 된다.

국민 수요에 맞춰 지역 특색을 살리고 홍보방안 개발 등 본격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국민정책디자인단은 시민 주도로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서산시의 가치를 살린 의미 있는 성과 도출을 위해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산 박첨지놀이는 충남 서산 읍암면 탑곡리 마을 사람들이 전해 내려오는 인형극으로 2000년 충남 무형문화재로 지정됐으며, 현재 탑곡 4리에 박첨지놀이전수관을 운영 중이다.

고정화기자

3080+ 주택공급방안 2차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2차로 서울 2개구 13곳 추가 선정, 약 1.3만호 규모

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021.2.4.)」 관련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의 2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강북구, 동대문구에서 총 13곳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3080+ 주택공급 방안 발표 이후 국토교통부는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신규사업에 대한 950여건의 컨설팅을 지원하고 432곳의 후보지를 접수하여 입지요건 및 사업가능성을 검토 중이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지난 3.31일 1차 선도사업 후보지 21곳을 선정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동의서를 제출받는 등 본격적인 사업 착수를 위한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3080+ 주택공급 방안 발표(2.4) 후 신규택지, 도심후보지 공개 등 신속한 후속조치에 따른 공급기대 확산, 매수심리 진정 등 시장안정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점인식 확산, 시장금리 상승, 공시가격 발표 등에 따른 시장여건도 변화하며 주요지표도 긍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서울 일부 재건축단지 등은 최근 규제완화 기대감으로 인한 가격상승 조짐이 포착되고 있어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으로, 시장안정세를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해선, 당초 계획대로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가시적 성과를 조속히 창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

되었다.

이번에 선정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는 3.31일 발표된 1차 후보지와 마찬가지로 강북구, 동대문구에서 제한한 23곳 후보지(역세권 15곳, 저층8곳)에 대하여 입지요건(범위·규모·노후도 등), 사업성요건(토지주 추가수익, 도시계획 인센티브)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강북구 11곳(역세권 7곳, 저층주거 4곳), 동대문구 2곳(역세권 1곳, 저층주거 1곳)이 선정되었으며,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약 1.29만호의 신축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규모이다.

이번에 선정된 2차 선도사업 후보지 13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결과 ①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인센티브를 통해 재개발 등 기존 자력개발 추진 대비 용적률이 평균 56%p 상승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②공급세대도 도시규제완화 및 기반시설 기부채납 완화(15% 이내) 등을 통해 자력개발 대비 구역별 평균 약 251세대(34.0%)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③토지주 수익은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을 통해 우선분양가액이 시세대비 평균 66.3% 수준으로 예측되었으며, 이에 따라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28.2%p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3080+ 사

업을 통해 사업성 개선의 효과가 토지주에게 실질적인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번에 선정된 선도사업 후보지는 입지요건, 개발방향 등에 대해 공공시행자,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선정하였으며, 향후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조속히 세부 사업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계획(안)과 사업효과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토지등소유자 10% 동의요건을 우선 확보하는 후보지에 대해서는 7월부터 예정지구로 지정하여 신속하게 개발할 예정이다.

선도사업 후보지 중 금년 중 주민동의를 받아 사업에 착수(지구지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주에게 최고 수익률(민간 재개발사업 대비 30%p 증가)을 보장하고, 도시·건축규제완화 등 인허가를 우선 처리하는 등 국토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3080+ 대책의 신사업인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의 경우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공급되는 주택은 민간재개발사업 대비 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여러 지원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우선, 우선공급 받는 기존 토지등소유자는 등기 후에는 전매가 제한되지 않고, 실거주 의무도 부과되지 않을 예정이며, 토지등소유자의 선호에 따라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평형도 공급된다.

중전자산의 규모가 큰 경우 중전

자산가액 또는 중전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1+1(60㎡ 이하) 주택공급도 허용할 예정이다.

특히, 2.5일 이후에도 상속과 이혼으로 인한 권리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우선공급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사유도 규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의도치 않은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1차 선도사업 후보지와 동일하게 예정지구 지정시 이상·특이거래에 대해 조사하고, 필요시 국세청에 통보 또는 경찰청에 수사의뢰하는 등 철저히 투기 수요유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3080+ 주택공급방안 관련 후보지를 순차적으로 지속 발표해 나갈 예정으로, 지난달 31일 1차 발표된 후보지들에서 주민동의서가 벌써 제출되는 등 주민 호응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발표되는 선도 후보지들에 정부 지원을 집중하여 조속히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3080+ 대책(2.4) 발표 이후 공급기대 확산으로 매수심리가 진정되고, 주요지표(가격·거래량·매물·매수우위지수)에서도 시장안정 효과를 보이고 있으나, 보편선거 전후 규제완화 기대 등으로 인한 시장불안이 포착되고 있는 만큼, 시장상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관계기관의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김해시 사회적경제 기업 활성화 적극 지원

“탄탄한 지원체제로 경제적 사회적 가치 실현”

김해시는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허성근 시장은 취임 초기부터 사회적경제 가치에 주목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역점 추진하기 위해 탄탄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왔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은 경제활동 활성화 기여를 넘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 제공과 일정부분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선순환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현재 김해에는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192개 사회적경제기업이 활동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기업 수와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8년 9월 영남권 최초로 김해여객터미널 내 개소한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인 김해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활동가 양성, 민간네트워크 구축, 각종 컨설팅, 홍보, 교육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대상에게 창업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컨트론타워로 자리매김해 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먼저 진출한 선배기업인의 노하우를 전수 받을 수 있는 멘토링제도 운영, 사회적경제기업 체험 행사의 날, 네트워킹데이 행사 등을 지원하고 인큐베이팅 사업으로 초기 창업기업에게 사무 공간도 제공한다.

또 전국 처음으로 김해와 진주에 분리 조성한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를 유지해 작년 12월 부원동에서 개소, 올해 본격적인 운영과 함께 각종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곳은 사회적기업으로 진출한 기업이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임대주공간과 교육, 멘토링 등을 지원해 초기 창업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경쟁력을 갖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간지원기관이다. 김해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함께 사회적경제기업이 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개소 이후 공모를 통해 현재 상주기업 10개, 코워킹기업 20개 등 모두 30개 기업이 운영 중이다.

시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매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건설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표적인 지원사업으로 행복공동체조성사업과 사회적기업 창업 BOOM-UP 사업이 있으며 2018년 시작해 올해까지 각각 매년 10여개 정도의 기업을 양성했다.

해당 사업은 사업기간 동안 기업의 역량을 키워 이를 기반으로 향후 마을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초기 창업자에게는 단비와 같은 사업이다.

공모사업도 역점적으로 추진해 확보한 국·도비로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 창출, 전문인력, 사업개발비, 시설장비비 등 다양한 사업공모를 통해 2018년부터 확보한 국·도비 18억을 지원해 초기에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 청년부흥프로젝트사업, 공동체활동지원사업, 아파트공동체지원사업 등 새로운 공모사업에도 적극 참여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허성근 시장은 “경제적 이익 창출과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경제, 사람이 행복한 공동체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영명기자



★★★★★

광명시, 2020 대한민국 도시재생 심포지엄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 '도시재생 뉴딜 우수 지자체' 심포지엄 추천!

울산시 - 새마을금고중앙회 '2021년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협약체결

울산시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지역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해 힘을 모은다.

울산시는 15일 새마을금고중앙회와 '2021년도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협약(서면)을 체결하고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기존 13개에서 14개 금융기관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울산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협조융자 방식으로, 울산시에서 정하는 한도만큼 대상기업을 선정해 추천하면, 금융기관 자금으로 융자하고, 융자금에 대한 이자 중 1.2 ~ 3%까지 울산시에서 지원하게 된다.

협약한 금융기관은 대출과정에서 구축성 예금강요나 권유 등 일체의 부당행위를 할 수 없으며, 중도상환수수료도 부과할 수 없다.

이번 협약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오는 6월, 올해 2차 중소기업 자금부터 공급에 나서게 된다.

자금 신청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울산경제진흥원으로 신청해 추천서를 받은 후, 원하는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올해 중소기업 자금 총규모는 1,450억 원이며 소상공인은 별도 550억 원이 지원된다.

김기현기자



군포시, 2030세대 경제 첫 걸음 위한 생활경제 교육 실시

군포시는 청년들의 합리적인 경제활동 능력 향상을 위해 '2030세대 경제 첫 걸음을 위한 청년 생활경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 내용은 돈 관리와 재정능력 향상, 신용등급 올리기, 금융상품 이해와 올바른 활용법, 합리적 대출받기, 보험상품 선택방법, 금융사기 예방법 등, 현대인에게 필수적인 금융·경제지식 쌓기로 구성됐다.

경제관념이 미숙할 수 있는 사회 초년생이 합리적인 경제목표를 세워서 금융 등 경제생활에서 균형잡힌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번 교육의 주안점이 두어졌다.

교육은 5월 10일부터 6월 21일까지 매주 월요일에 줌(ZOOM) 플랫폼

을 통한 온라인으로 실시된다.

교육 신청은 4월 16일부터 5월 7일까지 시청 홈페이지(시민참여-인터넷 접수)나 이메일로 하면 된다.

한대희 시장은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다소 위축된 상황에서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2030세대에게는 수입도 중요하지만 수입 등 자산을 잘 관리하는 노하우도 필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군포시 청년들이 생생한 경제지식을 쌓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군포시는 지난 2월 청년 생활경제 교육 등을 끝자로 하는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확정 한 바 있다.

원종균기자



“강홍석, ‘대박부동산’ 반전 매력의 사기꾼으로 등장 첫 회부터 ‘대박캐릭터’ 탄생 예고”

배우 이일화, ‘나의 너에게’ 특별출연! 열혈 엄마 ‘지영’ 役.. 연제형-임나영-이종혁 호흡

강홍석, ‘저 세상 캐릭터’ 전문, 이번에는 ‘퇴마 사기꾼’으로 변신했다

배우 강홍석이 KBS2 ‘대박부동산’에서 이번에는 반전 매력을 지닌 사기꾼으로 변신해 시청자들의 이목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강홍석이 어제 14일 대만원의 문을 연 KBS 2TV 새 수목드라마 ‘대박부동산’에서 귀신을 이용해 돈을 버는 퇴마 사기꾼 허지철로 등장했다.

강홍석은 사기꾼이라는 이미지에 걸맞지 않은 근검절약 정신을 지닌 인물로 정용화와와 찰떡 브로맨스 케미를 선보이며 첫 회부터 ‘대박캐릭터’의 탄생을 예고했다.

이날 방송에서 허지철은 오인범과 함께 팀을 꾸려 귀신이 있는 것처럼 상황을 연출하고 이를 퇴치하는 장비가 있다고 속이는 사기 수법을 이용해 돈을 벌고 있었다.

관공서 등 못 뜯는 곳이 없는 ‘천재 해커’인 허지철은 각종 전자 장비들을 능수능란하게 다루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타깃들을 공포에 떨게 한 것. 이어 허지철은 무표정하고 협박한 인상, 사기꾼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반전 매력을 드러내기 시작

했다.

허지철은 사기로 번 돈을 곧바로 통장에 입금하고 호텔 미니 바를 이용하는 인범에게 잔소리를 하는 등의 ‘짠돌이’ 면모와 함께 타운하우스 구입을 꿈꾸며 미래를 설계하는 의외의 모습을 보여줬다.

또한 허지철과 정반대의 성향을 지닌 인범과의 케미 또한 돋보였다. 허지철은 번 돈을 펄펄 쓰며 자신에게 핀잔을 주는 인범과 아옹다옹 하면서도 사기 행각을 벌이거나 조폭에게 쫓기는 순간에는 놀라운 호흡을 뽐내며 색다른 브로맨스를 완성해나기도 했다.

특히 강홍석은 앞서 ‘짚니다 천리마마트’에서는 건달 출신의 마트 직원으로 ‘호텔 델루나’에서는 저승사자로 출연하는 등 개성 넘치는 ‘저 세상 캐릭터’를 자신만의 색깔로 완벽하게 소화해온 터. ‘대박부동산’에서도 첫 회부터 강렬한 인상을 남긴 강홍석이 앞으로 보여줄 활약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전순희/기자



빅보스엔터테인먼트는 15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배우 이일화가 오는 19일 방송되는 KBS 1TV ‘나의 너에게’에 ‘지영’으로 특별 출연한다”고 밝혔다.

‘나의 너에게’는 3년전 베커 근이영 양증을 갖게 된 성훈(연제형 분)이 친구와 가족 사이에서 갈등을 해소해 나가며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장애 이해 교육 드라마.

이일화는 극 중 성훈(연제형 분)의 엄마 ‘지영’으로 분한다. 장애를 가진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열혈 엄마인 그는 자신의 재능을 살려 장애인 편의를 위한 기능성

신발 개발에 몰두하는 인물.

이에, 이일화는 짝한 모성애를 지닌 지영을 특유의 섬세한 감정 연기와 디테일한 표현력으로 소화, 극의 몰입도를 높일 예정이라고. 특히, 다수의 작품을 통해 한없이 다정하고 친구 같은 엄마의 모습부터 가슴 절절한 모성애, 빼놓아진 모성애 등 다양한 엄마 캐릭터를 그려 낸 바 있는 이일화가 이번 작품을 통해 어떤 연기를 보일지 기대가 모인다.

한편, ‘나의 너에게’는 오는 19일 오후 2시 30분에 KBS1에서 방송된다.

최만식/기자



‘오! 주인님’ 나나 “이민기, 강민혁 둘 다 좋아해” 폭탄선언 ‘깜짝’

‘오! 주인님’ 나나가 이민기, 강민혁에게 폭탄선언을 했다.

4월 14일 방송된 MBC 수목미니시리즈 ‘오! 주인님’(극본 조진국/연출 오다영/제작 넘버스리픽쳐스) 7회에서는 한비수(이민기 분), 오주인(나나 분), 정유진(강민혁 분)의 삼각 로맨스가 더욱 강력해졌다. 급기야 엔딩에서는 두 남자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여자 오주인이 폭탄 선언을 하며 안방극장이 발칵 뒤집어졌다. 상상도 못한 오주인의 발언이 이들의 삼각관계를 폭발하게 한 것이다.

이날 방송은 자신이 한비수에게 한 볼 뽀뽀에 깜짝 놀란 오주인의 모습으로 시작했다. 오주인은 “비जू”라고 애써 강조하며 오만함을 감추려 했다. 한비수도 당황하기는 마찬가지. 하지만 당황스러움 보다 설렘, 기쁨이 더 컸다. 수줍은 듯 허둥대는 한비수와 오주인의 모습을 통해, 이들의 마음이 서로에게 향하고 있음을 시청자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오주인을 바라보는 또 다른 남자 정유진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다. 대외적으로 연애 중인 오주인과 정유진은 커플 인터뷰를 진행하게 됐다. 기자의 질문에 답하던 중 정유진은 오주인을 향한 자신의 진심을 표현했다. 일직선으로 다가서는 정유진의 고백에 오주인의 마음도 흔들렸다.

그렇게 얽히고설킨 감정의 세 남녀가 한 자리에 모였다. 오주인이 일일 라디오DJ를 맡은 가운데 정유진은 응원을 위해, 한비수는 특별 게스트로 출연하기 위해 방송국에 나타난 것. 한비수와 정유진은 은근한 신경전을 펼쳤다. 이후 한비수와 오주인 단둘이 라디오 부스 안으로 향했다. 밖에서 지켜보던 정유진은 서로를 바라보는 두 사람의 눈빛, 미소를 통해 한비수의 마음을 직감했다.

질투심을 느꼈기 때문일까. 그날 정유진은 오주인의 집에서 자고 가겠다고 부탁했다. 이에 방송국에 이어 한옥에서도 한비수와 정유진의 귀여운 신경전은 계속됐다. 서로 상대가 오주인과 가까워지는 것은 아닌지 의식한 것. 그러던 중 정유진은 오주인이 한비수와 눈을 맞추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말았다. 아슬아슬 세 남녀의 삼각관계가 폭발했다.

이후 오주인은 한비수와 정유진에게 “작가님, 유진이 둘 다 좋아해요”라고 말했다. 오주인의 폭탄선언에 두 남자는 깜짝 놀랐다. 그러나 오주인은 누구보다 솔직하고 당당한 성격이다. 실제로 두 남자 중 자신의 마음이 누구에게 더 향해 있는지 헷갈리는 상황을, 솔직한 오주인 인답게 표현한 것이다. 오주인이 과연 누구를 사랑하는지, 둘 중



누구를 선택할지 궁금증이 치솟는 엔딩이었다.

55분 동안 알콩달콩 귀여운 삼각 로맨스를 그린 ‘오! 주인님’ 7회는 마지막 5분 동안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오주인의 폭탄선언을 보여주며 시청자를 깜짝 놀라게 했다. 사랑스러운 여자와 그 여자를 좋아하는 극과 극 매력의 두 남자. 언뜻 뻘뻘한 삼각 로맨스로 보였지만, 결코 뻘뻘하지 않았다. 이를 때로는 귀엽게, 때로는 진지하게 그리는 이민기, 나나, 강민혁 세 배우의 표현력도 돋보였다.

과연 오주인은 두 남자 중 누구를

선택할까. 중반부에 접어들며 더욱 강력한 로맨스의 재미를 선사하고 있는 MBC 수목미니시리즈 ‘오! 주인님’ 8회는 오늘(15일) 목요일 밤 9시 20분 방송된다. ‘오! 주인님’은 IQIYI International에서 방송과 동시에 전세계 서비스하며, 각 회 별로 방송 직후 볼 수 있다. 해외 유지는 IQ.com를 접속하거나 애플스토어 또는 구글플레이를 통해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 IQIYI International이 제공하는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최재은/기자

‘마우스’ 권화운, 처연한 얼굴 VS 섬뜩한 목소리 달라도 너무 다른 극과 극 분위기!

배우 권화운이 극과 극 매력을 자아내 눈길을 모았다.

권화운은 지난 14일 방송된 tvN 수목드라마 ‘마우스’(연출 최준배/극본 최란)에서 처연해 보이는 성요한을 깊은 눈빛 연기로 그려내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날 권화운의 씩씩한 눈빛은 시청자들의 모성애를 자극했다. 성요한(권화운 분)은 과거 최홍주(경수진 분)의 회상에 등장한 것. 그는 최홍주에게 어릴 때부터 햇살을 바라보면 슬프다며 자신의 감정을 털어놔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감정을 털어놔 눈길을 끌었다.

처연한 분위기를 자아냈던 것과 달리, 강덕수(정은표 분)를 공격하는 정바름(이승기 분)의 귀에 속삭

이며 살인을 종영해 소름을 유발, 극적인 몰입도를 높였다.

이처럼 권화운은 한 회 안에서 180도 다른 극과 극의 감정을 위화감 없이 넘나들며 성요한을 입체적으로 그려내 극의 집중도를 한껏 드높였다.

한편 권화운이 출연하는 tvN 새 수목드라마 ‘마우스’는 자타 공인 바른 청년이자 동네 순정인 정바름과 어린 시절 살인마에게 부모를 잃고 복수를 향해 달려온 무법형사 고무치가 사이코패스 중 상위 1%로 불리는 가장 악랄한 프레데터와 대치 끝, 운명! 송두리째 뒤바뀌는 모습을 그려낸 본격 인간 헌터 추적극으로, 매주 수, 목요일 밤 10시 30분에 방영된다.

최재은/기자



배우 김명민, 첫방 D-DAY JTBC ‘로스쿨’로 ‘연기본좌’의 귀환 예고!

JTBC 로스쿨 김명민, 역대급 새캐릭터 탄생 예고! 시청자 기대감 상승!



배우 김명민이 드라마를 통해 또 다른 역대급 캐릭터 탄생을 알린다. 김명민은 14일 첫 방송되는 JTBC 새 수목드라마 ‘로스쿨’(극본 서인, 연출 김석윤, 제작 JTBC스튜디오 스튜디오피닉스 공감동하우스)에서 검사 출신의 형법교수 ‘양종훈’ 역으로 시청자와 만난다.

김명민이 출연하는 ‘로스쿨’은 한국 최고 명문 로스쿨 교수와 학생들이 전대미문의 사건에 얽히게 되면 펼쳐지는 캠퍼스 미스터리 드라마. 피, 땀, 눈물의 살벌한 로스쿨 생존기를 통해 예비 법조인들의 법과 정의의 깨닫는 과정을 담아낸다.

이번 작품에서 김명민은 국내 최고 명문 로스쿨 형법교수 ‘양종훈’ 역을 맡았다. 그는 검사 출신의 엘리트 코스를 밟은 교수로, 어떠한 계기로 인해 검사복을 벗고 후학양성의 길로 들어섰다.

‘양아치 법조인’ 대신 ‘올바른 법조인’을 키우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지녔으며, 숨막히는 수업방식과 독설이 난무하는 직설화법으로 학생들이 공포에 떠는 인물.

앞서 김명민의 ‘로스쿨’ 출연소식 만으로도 드라마 팬들의 이목집중이 이어졌다. 김명민은 그 동안 드라마 ‘하얀거탑’, ‘베토벤 바이러스’, ‘육룡

이 나르샤’, 영화 ‘조선명탐정’ 시리즈 등 장르불문 독보적인 캐릭터 표현으로 ‘명민좌’라는 애칭을 얻으며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믿고 보는 배우’로 등극한 김명민이 그려낼 ‘양종훈’, 그가 선택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흥미를 갖게 한다.

더불어 사전 공개된 티저 영상, 스페셜 포스터에서도 김명민만의 강렬한 포스와 서늘한 카리스마가 녹여져 있어 색다른 ‘마라맛’ 캐릭터 탄생을 예고했다.

이에 시청자들도 김명민의 색다른 모습에 궁금증을 자아낸 바 있다. 또한 작품이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되는 만큼, 글로벌 시청자의 반응이 어떠한지도 더욱 기대가 모아진다.

특히 김명민은 연기본좌로 불리는 배우이지만, 평소 생활 속에서 구사하지 않는 생소한 법조용어를 대사로 연기해야 하는 만큼, 이번 작품에 더욱 각고의 노력을 기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는 최근 공개된 드라마 메이킹 영상을 통해 “이거 정말 감정 안 깨고 잘 해야하는데, 막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근데 양종훈만큼 매력적인 캐릭터는 없는 것 같다”라며 “드라마 역시 참신한 소재의 전문적이고 차원이 다른 고품격 드라마다”고 남다른 애정을 드러냈다.

한편 김명민이 출연하는 ‘로스쿨’은 매주 수, 목 밤 9시 방송된다.

최만식/기자